

제4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

일가사상의 형성

일가 김용기와 청교도사상 - 종교적 측면
유교와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사상 - 윤리적 측면

일시 : 2003년 11월 1일(토) 오후 2시

장소 : 제1가나안농군학교(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주최 : 일가기념사업재단 부설 일가사상연구소

후원 : 가나안농군학교

◆ 일 정 표 ◆

* 제 1 부 *

사회 : 림영철(일가사상연구소 소장)

인사말 김상원(일가기념사업재단 이사장)

연구발표 1 ----- 2:30 - 3:10

좌 장 : 김소엽(호서대학교 교수)

발표자 :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일가 김용기와 청교도 사상 - 종교적 측면

토론 ----- 3:10 - 3:30

신현수(평택대학교 신학과 교수)

조상식(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휴식 ----- 3:30 - 3:50

연구발표 2 ----- 3:50 - 4:30

좌 장 : 김정삼(구미시 법원 판사)

발표자 : 이태건(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유교와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사상 - 윤리적 측면

토론 ----- 4:30 - 4:50

정규훈(충신대학교 교수)

이복규(서경대학교 국문과 교수)

종합토론 ----- 4:50 - 5:50

좌장 : 정지웅(서울대학교 교수)

인사 및 광고 ----- 5:50 - 5:55

김종일(가나안농균학교 이사장)

* 제 2 부 *

리셉션 ----- 6:00 - 7:00

◆ 인 사 말 ◆

올해는 정치경제적으로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지도자가 더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자의 정신으로 바르게 나아갈 지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던 일가 김용기 선생님이 더욱 생각납니다.

본 재단에서는 하나님과 이웃, 땅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잘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던 일가 김용기 선생의 복민주의 사상을 오늘의 이 시대에 재조명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다짐하며, 널리 알리고자 오늘의 이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일가사상의 형성’입니다. 시대의 선각자와 실천가로 사셨던 일가 선생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실천적 신앙의 소유자였던 일가선생의 삶과 정신이 형성된 종교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연구해 주신 오덕교 교수님, 이태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으신 신현수 교수님, 조상식 박사님, 정규훈 교수님, 이복규 교수님과 좌장을 맡으신 김소엽 교수님, 김정삼 판사님, 정지웅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가선생의 사상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먼 길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제2, 제3의 일가선생과 같은 선각자가 태어나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과 세계에 도덕과 신뢰가 되살아나며 아름답고 희망찬 조국을 건설하려는 일꾼들에게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1일

일가기념사업재단 이사장 김상원

◆ 목 차 ◆

주제 : 일가사상의 형성

연구발표1(일가 김용기와 청교도사상 - 종교적 측면)

발 표 :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4

토 론 : 신현수(평택대 신학과 교수)----- 21

토 론 : 조상식(서울대 교육연구소 연구원)----- 24

연구발표2(유교와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사상 - 윤리적 측면)

발 표 : 이태건(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26

토 론 : 정규훈(충신대 교수)----- 44

토 론 : 이복규(서경대 국문과 교수)----- 47

◆ 연구발표 1 - 종교적 측면

일가 김용기와 청교도 사상

오 덕 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9세기말의 우리 나라는 세계 열방의 개방 압력에 밀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 1866년에는 프랑스가 개방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입하였고, 1871년에는 미국이 제너럴 셔먼 호(the General Sherman)의 침몰 사건을 이유로 통상 조약의 체결을 주장하며 신미양요를 일으켰다. 그 후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를 침략하여 1876년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결국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는 불운을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 것이 바로 기독교회였다.

들어가는 말

기독교회는 1884년 미국의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가 제물포에 도착한 이후로 이 땅에 세워졌다.¹⁾ 선교사의 도착과 함께 기독교회는 반상 제도의 타파, 남녀 평등의 실현, 신학문 보급을 통한 교육 운동을 전개함으로 사회 개혁을 이끌었고,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하여 낭비와 사치를 추방하였으며, 노동을 장려함으로 국부(國富)의 부흥을 꾀하는 등 자주 국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와 같은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의 신앙형태는 무엇이었나? ‘한국 보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박형룡 박사와 ‘칼빈주의 신학의 대부’인 신복윤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나라에 소개된 기독교 신앙형태는 전통을 강조하는 로마 천주교회나 국가의 수령이 교회를 지배하는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루터의 가르침에 따르는 루터파 교회가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한 청교도적인 신앙이었다.²⁾ 곧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졌던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이 소개되어 이 땅에 토착화하게 된 것이다.³⁾ 미국 북장로교 총회의 선교 책임자로 1919년 한국을 방문한 바

1) 19세기 중엽부터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 가 있던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국하여 복음을 전한 일이 있지만, 본격적인 선교 운동이 시작된 것이 이때로부터라고 생각한다.

2) 박형룡 박사는 그의 논문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에서, 한국교회의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교회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 교회는 청교도의 신앙에 기초하여 세워졌다고 하였으며, 신복윤 박사는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논문에서 한국 교회의 신학을 “유럽의 칼빈주의와 영미의 청교도 사상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구현된 신학, 즉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지적하였다. 박형룡,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 4권 3집 (1976년 가을), p. 11; 신복윤,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신학정론」 제 10권 1호 (1992년 3월), pp. 115-116.

3)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초기의 선교사들은 철두철미한 청교도적인 신앙 훈련받은 사람

있는 아서 브라운(Arthur Judson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 문호 개방 이후 찾아 온 선교사는 전형적인 청교도형의 사람이었다. 성수 주일하기를 우리 조상들(미국인)이 뉴잉글랜드에서 1세기 전에 하듯 하고, 댄스나 흡연이나 카드 놀이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죄로 인정한다. 신학과 성경 비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며 그리스도의 전천년설을 핵심적인 진리로 믿는다. 고등 비평이나 자유 신학을 위협한 이단으로 단죄한다.⁴⁾

이처럼 청교도적인 신앙이 한국에 소개되었고, 그것이 한국화 되어 한국교회는 철저한 주일 성수, 금욕과 절제의 생활, 오직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청교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청교도 운동은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다. 청교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영국 교회 안에 남아있는 로마천주교회의 잔재를 제거함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곧 세례 받을 때에 대부(god-father)를 세우는 것, 성자를 기념하는 축성일(祝聖日), 십자가 성호를 긋거나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것과 성직자의 복장 착용 등을 거부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믿고, 예배하며, 살려고 하였다. 또한 교회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사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곧 성경을 신앙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예배하며, 가정, 교회, 국가와 같은 사회의 질서를 성경대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개혁의 수단으로 설교와 권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소명 교리를 강조함으로 성도들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가 김용기 장로가 청교도에 대해 배웠다거나 그들의 저서를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부강함이 청교도에게서 왔으며, 특히 청교도의 개척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는 등 청교도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⁵⁾ 이러한 배경에서 혹자는 “일가 선생의 근면과 절약의 생활 신조는 청교도적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⁶⁾ 다른 이는 “일가 가계의

들이었다.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가 펴낸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1922년 당시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는 40여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출신이었고, 11명이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이며, 4명이 샌 앤젤모 신학교(San Anselmo Theological Seminary), 3명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출신이었다(*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Annal Report, 1922, p. 17.*) 이 보고서는 1922년 작성된 것이므로, 상기의 신학교들이 좌경화되기 전의 보고이다. 특히 프린스턴과 맥코믹 신학교와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는 당시 미국에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었다. 또한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들이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았고, 이를 한국에 심었다. 특히 평양 신학교의 설립자인 마포삼열 선교사나 나중에 합세한 곽안련, 이윤서 선교사 등은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신복윤 박사에 의하면, “평양신학교는 1936년까지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도 1890년 한국에 온 마포삼열(Samuel A. Moffet, 1864-1939 설립자), 1902년에 온 곽안련 박사(Allen D. Clark, 1878-1961, 설교학, 교리학), 그리고 1892년에 온 이윤서 박사(William D. Reynolds, 1905년 사망, 조직신학) 등 세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들은 엄격한 개혁주의자들이었다.”(신복윤, 앞의 책, p. 121). 곧 이들에 의해 청교도적 칼빈주의가 이 땅에 정착한 것이다.

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p. 111.

5)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개정판 (서울: 규장문화사, 1998), pp. 123, 286-287. 앞으로는 author-date 체계에 따라 본문에 각주하면서 (김용기 1998)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할 것이다.

6) 박진환, “일가 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 생활 - 가나안농군학교와 새마을교육을 중심으로” 『제 2회 일가 사상 세미나 자료집』 (2000년 12월), p. 76.

신앙계보나 초기 개종 과정을 살펴보면 일가의 신앙은 개신교 가운데 청교도적 신앙을 견지하는 선교사들과의 교섭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일가는 일종의 토착 청교도였다”고 지적하였다.⁷⁾ 과연 일가 선생이 토착적인 청교도였는지는 그의 글과 연설에 나타나는 신앙관과 생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봉안 이상촌에서 시작하여 가나안농군 학교까지 이어 온 일가 선생의 이상촌 운동, 이상촌의 기초가 되는 이념들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강조했던 몇 가지 사상들을 통해서 일가 선생과 청교도 사이의 유사성 또는 일가의 청교도적인 사상을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상촌 운동

먼저 일가 김용기 장로가 농민운동가로, 사회운동가로 나서게 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일가의 농민운동은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그는 14세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광동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중학교 4년을 통해 우리 민족이 당한 처지를 깨닫고, 민족을 이끌어 나갈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김용기 1998, 38). 일가는 중학생 시절 3.1운동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광동중학교 선생들을 통해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해 듣게 되었고, 민족주의자로 각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선생들은 일제의 감시 때문에 한국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되도록 직설을 피하면서 비유를 써서 얘기”하였다. 스승들로부터 한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 일가는 그의 부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곧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운을 띄워놓으면 그 해석은 집에서 아버지가 해 주셨다”(김용기 1998, 40).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비운과 왜놈의 만행”을 알게 된 일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은 일본보다 더 큰 나라, 곧 중국 대륙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일가는 이를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심양에서 이성락 목사를 통하여 그의 생각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귀국하였다. 귀국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하던 중 부친의 임종을 맞게 되었다. 그 때 그의 부친은 다음과 같은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야말로 산업의 원동력인데, 역대로 지식인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촌맹(村氓)들만 이 농사일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제, 문명 등이 후진성을 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일인(日人)의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의 주권(主權)을 회복하려면 먼저 경제자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곧 지식인이 농사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증산하는 길밖에 없다(김용기 1998, 61).

일가 선생은 흙과 농촌을 지키라는 선친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농민 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 농사를 통해서만 경제 자립을 할 수 있고, 경제자립을 통해서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열심히 일하여 “농사 짓기 시작한 지 2년만에 동네에서 제일 농사

7) 김기석, “국난 극복을 위한 一家 김용기 장로의 생애史” 『一家 김용기 선생 10주기 세미나 자료집』 (1998년 9월), p. 41.

를 잘 짓는 일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동네 선배 농사꾼들이 그의 근면과 기술을 따르게 되면서 마침내 “동네 두레패에서 부령좌(副領座)의 자리를 맡기에 이르렀다”(김용기 1998, 73).

농사에 자신을 갖게 된 일가 선생은 경제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곧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파라다이스)을 만들어” 그의 이상에 맞는 “작은 왕국을 건설하여 다스림”으로 자주 국가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였다. 곧 마을에는 “오곡이 익어가며 과수들의 꽃이 만발하고, 벌과 나비가 춤을 추고, 집집마다 젖 짜는 양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을 사들은 모두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근로하며 생산(生産)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정신적, 영적(靈的)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김용기 1998, 73-74). 곧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 안에서 단결하고 죄를 억제함으로써 경건한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경제 자립과 자주 국가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신앙적 이상촌을 꿈꾸게 된 것이다. 일가 선생의 이러한 꿈은, 1630년경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이민하여 성경대로 믿고 예배하며 다스리는 모범적인 신앙공동체를 건설하여 유럽의 모든 교회와 국가가 우러러보는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를 세우고자 한 존 윈스롭(John Winthrop)을 비롯한 비분리주의적 청교도 일행의 꿈과 일맥상통하는 것⁸⁾으로, 일제의 박해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가 선생은 이상촌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중앙선 개설 공사장에서 가게를 차려서 큰돈을 모았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광산 채굴에 투자하였다가 모았던 돈을 다 날려버리는 고통을 겪었다. 일가 선생은 이를 통해 이상촌의 건설이 투기로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피와 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김용기 1998, 78).

수많은 어려움을 이긴 후 이상촌을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자, 일가 선생은 1935년 그의 뜻에 동조하는 이들을 모아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에 봉안이상촌을 세웠다. 미리 정해 놓은 대로 가호 배치를 하고, “집의 구조나 형태는 설계한 대로 맞추었다.” 가족 수에 비례하여 대지의 평수를 증감하게 하였고, 집에 필요 없는 외관의 사치를 금했으며(김용기 1998, 87), “먹는 것도 쌀 주식주의를 버리고, 잡곡, 고구마 등으로 대치시켰으며, 입는 옷도 일체 사치를 금하고, 생활에 편리한 의복으로 모두 개조”(김용기 1998, 89)하여 청교도적인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였다. 또한 “매 가호마다 반드시 신앙을 한 마리 이상씩 기르게 하여 그 젖을 짜 먹게 함으로써 건강과 영양을 도모하였고,” 가축을 기르게 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였다. 농사는 밭농사와 과수 재배를 위주로 하였다(김용기 1998, 88). 일가 선생은 이상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인 존 윈스롭이 그랬던 것처럼⁹⁾ “부락 전체의 종합된 의견으로 결정하여”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였다(김용기 1998, 90).

일가 선생은 이상촌을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신앙중심적인 단체로 만들려고 하였다. 청교도처럼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게 한 뒤에 생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시킴”으로 신앙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¹⁰⁾ 부락민에게도 개척 기술과 영농기술을 습득시킴으로 생활을

8) 오덕교, 「청교도와 교회개혁」 수정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pp. 72-73.

9) 존 윈스롭 일행은 ‘언덕 위의 도시’인 매사추세츠를 건설하면서 모든 중요한 업무를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주 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곤 했다. Edmund S. Morgan, *The Puritan Dilemma: The Story of John Winthrop*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8), pp. 112-113.

10) 오덕교,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가정관 연구” 『성경과 신학』 27권(2000), pp. 415-450를 참고하십시오.

개선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신앙적 교훈을 우선하였다. 이러한 신앙에 기초하여 일가 선생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이상촌의 이념으로 삼고 이상촌 운동을 전개하였다(김용기 1998, 91). 또한 일제의 창씨개명, 신사 참배, 공출, 징용 및 징병에 불응하고 애국지사를 숨겨주는 등 민족 운동을 잊지 않았다(김용기 1998, 102-109).¹¹⁾ 이상촌의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제 자립을 통한 극일(克日)이었기 때문이다

봉안이상촌을 통해 “어떠한 고통이라도 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일가 선생은 “전 조선에 이와 같이 실시하면 농민이 행복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¹²⁾ 이에 농민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결심을 하고, 우선 “50호 정도를 목표로 적지를 물색” 하였다(김용기 1965, 358). 1946년 이일선, 강태국 목사와 함께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에 있던 폐허가 된 13,000평의 과수원을 구입하여 삼각산 농원을 개간하였고,¹³⁾ 강연과 기고를 통해 ‘근로, 봉사, 희생’의 이상촌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자 하였다.¹⁴⁾ 농원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본래 “황폐해진 과수원을 다시 고쳐 놓겠다”고 생각했던 일가 선생은 자신의 임무가 다 된 것을 깨닫고, 1950년 5월 봉안이상촌으로 돌아왔다(김용기 1998, 132).

한국전쟁의 와중에 봉안이상촌이 폭격으로 폐허가 되자, 일가 선생은 1952년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에 강태국 목사와 함께 6만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에덴향을 만들었다. 일가 일행은 청교도처럼 자신이 살집보다는 먼저 교회당을 세우고,¹⁵⁾ 근검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농토를 일구었고, 복음농민학교를 세워 농민 운동을 확산하였다. 농민학교가 성장하자, 신학대학으로 세우자는 강태국 목사와 농민대학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터를 든든히 세우자는 일가 선생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결국 일가 선생은 1954년 에덴향을 떠나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에 가족들과 함께 1만여 평의 땅을 구입하여 가나안농원을 개간하였다.

청교도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처럼, 일가 선생은 가나안농장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 이 마을을 표본으로 하여 장차는 우리 나라 전체가 그 가나안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할 이상을 품게 되었다(김용기 1998, 216). 일가 선생은 꿈을 이루는 방법이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일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일하면서 이상촌 운동을 전개해 나아갔다(김용기 1998, 342). 먼저 천막 교회를 세우고, 아들 3형제와 함께 악단을 만들어 ‘농촌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계몽 운동을 통해 의식과 생활의 개혁을 촉구하였고, 천막교회에 영농강습회를 열어 ‘근로, 봉사, 희생’의 이상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상촌운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가나안농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에 힘입은 일가 선생은 국민이 바르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워서 국민 정신 교육을

11) 김용기, 「참 살길이 여기에 있다」 (서울 배영사: 1965), pp. 367-368. 앞으로는 본문 안에 (김용기 1965)로 표기할 것임.

12) 이일선, 「奉安理想村」(「참 살길이 여기에 있다」에 부록으로 나와 있음), p. 365

13)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서울 규장문화사, 1980), p. 112. 앞으로는 (김용기 1980)으로 표기할 것이다.

14) 한규무,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일가 김용기 선생 10주기 세미나 자료집」 (1988년 9월), p. 27.

15) 일가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 가정은 주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해 왔는데, 어디에 가거나 우리 살집보다 먼저 교회를 세운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그 교회당에서의 기도로 그날의 일을 시작하고 기도으로써 그날의 일을 끝낸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221).

시작했다.¹⁶⁾ 물려오는 인과를 수용하기 위해 1973년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에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웠고, 1980년까지 15만 명의 농민과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이 훈련에 참가하였다(김용기 1980, 209).

2. 이상촌의 기초 - 근로, 봉사, 희생

지금까지 우리는 일가 선생의 이상촌 건설을 통한 극일(克日)과 이상촌 건설을 위한 노고에 나타나는 청교도적 이상과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일가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의 이상촌 이념과 청교도적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가 선생이 봉안이상촌에서 가나안농군학교까지 이상촌운동을 전개하면서 강조해 온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가 선생의 ‘근로, 봉사, 희생’ 사상은 그가 광동중학교 시절에 이미 터득한 것으로, 그는 광동중학 시절에 반장을 하면서 동료들을 관리할 방법을 놓고 고민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교훈이 ‘근로, 봉사, 희생’ 정신임을 깨닫고, 이것을 통솔 이념으로 정하여 반을 운영했다(김용기 1998, 37). 일가 선생은 이 이념을 가정과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이념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지주로서의 이념”으로 삼았고(김용기 1998, 301),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생활의 진리요, 인류 평화의 근본”으로 내세웠다(김용기 1998, 345). 그는 1968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념은 무엇일까요? 근로, 봉사,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노동을 하여 자주적으로 생을 영위했으며, 조물주 하나님도 옛세 동안의 노력과 노동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주창조의 기사가 담신 성경에 기록된 바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는 말씀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도 그래서 근로로써 자신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시는 길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근로, 봉사, 희생의 이념만이 인류 생활의 진리요, 인류 평화의 근본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요 근본인 이념을 행하지 않고 인간이 꾸미고 조작한 지식에서 나온 수완과 술법으로 인생의 살아가는 길과 평화의 길을 해결하려고 부질없이 골몰하고 땀흘리니 해결이 될 리가 없습니다(김용기 1998, 333-335).

여기에서 우리는 일가 선생이 ‘근로, 봉사, 희생’ 정신을 그의 생활이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국가, 그리고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이런(근로, 봉사, 희생) 이념으로 하면 과연 어떻겠는가? 민족의 생활을 이런 이념으로 하면 그 동안의 역사와 같은 우리 민족사가 되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어느 나라의 민족의 이념(주체성)보다 더 훌륭한 이념이 될 것이다. 지금은 원자전쟁 세상이 아니고 이념전쟁 세상이다.

16) 물론 음식 만드는 법·농산물가공법·농촌의 생활 개선·황무지 개척법·이상촌 건설법·과수재배법·축산법·일반 농업기술·모범농사 창설법·음악·체육·육아법·종교학·회의진행법·민법 등을 가르쳤지만 강의의 2/3을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일가 선생의 농민 운동이 정신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용기 1998, 252).

과연 이 이념에서 지냈는가? 이 이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총결산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김용기 1998, 301-302). 곧 우리 민족이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개혁의 기초 이념으로 삼고 개혁해 나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일가 선생의 첫 번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 사상에 대해 살펴보자.

(1) 근로 사상

일가 선생은 청교도처럼 노동을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청교도들은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바퀴와 부속들이 협력해서 돌아가는 시계에 비유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서 그를 부르신 위치에서 노동 명령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⁷⁾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는 노역을 하였고, 천지 창조 후에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소명을 부여하였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그와 후손들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창 3:19)고 하였으며, 제 4계명을 통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친히 목수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위, 상태, 성, 조건에 관계없이 개인적(personal)이고 특정한(particular)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아담의 후손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교회나 가정, 국가를 막론하고 일해야 한다”고 하였다(Perkins 1626, 755).

청교도의 노동 사상은 일가의 신앙이기도 하였다. 일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땀을 흘려 “땅을 정복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⁸⁾ 그는 말하기를, “원래 사람은 흙에서 나고 흙으로 된 존재다. 역시 먹을 것도 땅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창 3:18-19)”라고 하였다(김용기 1998, 285).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음식 한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고 외쳤다.¹⁹⁾ 둘째로, 노동은 원죄를 범함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일가 선생은 부친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내가 철들 무렵, 아버지가 어린 나에게 때때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일 않고 앉아서 먹는 일이며, 땀을 흘려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떳떳한 일이다.’라고. 그리하여 아버지는 … 조상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뜻에서라도 더욱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곧 노동을 통해 원죄의 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김용기 1998, 20). 셋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였고, 지금도 세상사를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심으로 일하며, 성자 예수도 성부 하나님이 농부이며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묘사함으로 노동의 당위성을 보여주셨다(김용기 1998, 296, 327). 넷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할 수 있도록 손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⁰⁾

17) William Perkins, “A Treatise of the Vocations, or Callings of Men with the Sorts and Kinds of Them, and the Right Use Thereof.”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3 volumes (London, John Legatt, 1626), 1:750.

18) 일가 선생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황무지를 사서 정복하는 것으로 그의 생업의 원칙을 삼았다”(김용기 1998, 351).

19) 이한기 “일가 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 개발 - 가나안 동군학교와 새마을 교육을 중심으로.” 2001년 1월 15일. 토론 자료 p. 80.

20) 일가 선생은 주장하기를, “사람의 육체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손이

따라서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이를 통해서만 에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가 선생은 노동을 경시하는 학문이나 종교는 필요없다고 하였다. 노동은 “사람이 먹고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노동을 싫어하는 민족에게는 장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민족이 가난하게 된 것은 노동을 싫어하는 “와식사상(臥食思想)과 불한당사상(不汗黨思想)”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용기 1998, 298). 고려 “4백 년 동안의 불교가 우리 국민에게 얻어먹는 사상을 심어주었고, 이조²¹⁾ 5백 년 동안의 유교가 누워먹는 사상을 심어주었고,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는 아침하고 눈치보는 버릇을 길러주었고, 해방이 되니 미국의 거센 물결을 타고 건너온 그들의 문화를 잘못 받아들이 외면치레나 허풍떠는 버릇까지 붙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김용기 1998, 137),²²⁾ 일가는 “근로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다”는 음풍농월(吟風弄月)식의 선비 사상이나 노동을 경시하는 종교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는 노동 경시 풍조가 선비 사상과 종교의 영향에서 온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불교의 영향으로 노동을 경시하고 기도원만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불교의 “속세 기피사상은 불교 본래의 사상이라기 보다는 이조의 배불(排佛)정책”에 기초하며, 이때부터 불교 승려들은 “현세보다는 내세, 즉 정신면에 더 집착하게” 되었는데(김용기 1998, 326-327), 이러한 불교의 “철저한 정신주의, 즉 내세관은 우리 나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수많은 신자들이 “가업과 가족들을 버리고, 산중에다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일삼는다”고 하였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든 것은 단지 거기에서 사람이 기도나 올리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땀흘려 일하여” 먹고살면서 “번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으로서의 구속(救贖)사업만큼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중시하고 직접 노동을 하여 가업을 도우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요 15:1)고 하여 노동의 당연함을 말했다(김용기 1998, 327).

일가는 이와 같이 현실도피적 기도원운동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 손에 로마 병정들이 박은 못자국만 알고, 노동을 해서 생긴 못자국은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며(김용기 1998, 296), 일함으로 내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현세의 삶은 “내세로 가는 발판”이며, “그 준비 단계”이므로 현세 생활을 내세보다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김용기 1998, 328-329), 노동을 통해 신앙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활 속의 기도는 어느 산중이나 골방 속에서의 특별기도나 어느 예배에서의 공식기도보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였고(김용기 1998, 209), 하나님은 “잠시도 내가 일 않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육체를 편하게 놓아두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김용기 1998, 152).

21) 비록 일가 선생이 일제 식민 사관의 영향을 받아 ‘이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조라는 말은 일제가 조선왕조를 비하해서 사용한 용어이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22) 또한 그는 우리 조상들이 “땀을 흘리라 했는데 흘리지 않았다. 그럼 그 죄가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자손들에게 갈 것은 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죄에 역대 조상들이 죄까지 겹으로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우리 후손에게 그 죄가 또 씌워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김용기 1998, 287).

다 더 큰 기도가 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생활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감사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에서 떠날 때가 없다. 은혜로 단잠을 자게 되었으니 감사한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고, 세수할 때는 그 물로써 마음속까지 씻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마음속의 죄악도 성령으로써 청소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시계 태엽을 감을 때는 신앙의 해이(解弛)도 함께 감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밥을 먹으니 기도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니 충실히 하게 하도록 기도한다. 그 기도를 교회나 기도원에서만 할 수는 없다(김용기 1998, 329).

이와 같은 일가의 노동 사상은 청교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처럼 일반 소명(신앙)은 특별소명(직업)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Perkins 1626, 756), 일하지 않고 먹고사는 “사기꾼, 거지, 불량배”는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금식과 기도로 은둔하며 사는 수도승이나 수사의 직업이 결코 소명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금식과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일반적인 의무이며, “모든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단체의 유익을 위해 개인적이며 특정한 방법으로 일해야”하기 때문이다(Perkins 1626, 755).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기” 때문에 이처럼 현실을 떠난 신앙 생활은 ‘위선’이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죽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Perkins 1626, 757). 따라서 청교도들은 수도승과 같이 현실을 떠나서 사는 생활을 “저주받은 생활”이라고 정죄하였다(Perkins 1626, 75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가는 철저한 청교교였다.

(2) 봉사 정신

일가 선생은 이상촌의 기초가 되는 둘째 원리로 봉사 정신을 내세우면서 봉사는 “이웃을 섬기는 일”로, “협조와 단결”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44, 297). 인간이 서로 협조하며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서 고립되어서는 살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물주께서 당초에는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다. 그리하여 에덴동산에 살도록 했다. 그런데 그 좋은 에덴동산에서 살면서도 아담에게는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무리 좋은 에덴동산이라도 혼자서 못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조물주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 즉 하와가 생긴 것이다. 이 돕는 정신이 곧 봉사인 것이다(김용기 1998, 296-297).

일가 선생은 이러한 봉사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예수께서 직접 봉사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셨다고 하였다. 곧 “선생(예수)이 제자(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 이것이 봉사의 시초”이며, 특히 구세주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마 20:28)고 하신 말씀은 그의 “봉사 정신을 실천한 일면”이라고 언급하였다(김용기 1998, 2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봉사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²³⁾ 이러한 경향은 우리 민족에게 자주 발견된다고 하였다. 곧 독불장군식 개인주의 사상과 “남의 일을 방해하고 해 놓은 일을 배아파하는” 고질적인 병이 있으며, 이러한 그릇된 사상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고려청자와 석굴암 축조와 같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손들에게 비방을 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을 물려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우리민족에게 협조와 단결의 봉사 정신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 방면에서 세계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며, 지금쯤 우리의 밥그릇이 모두 고려청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였다(김용기 1998, 298). 일가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독불장군식 이기주의가 유교를 통해 더욱 확산되어 “이조의 사색당쟁”과 “8.15 직후 80여 단체의 난립” 등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을 막았다고 평하였다(김용기 1998, 297). 그러므로 일가 선생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복지사회로 가려면 협조와 단결의 봉사 정신이 구현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일가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왜 남을 도와야 하나?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홍수가 났을 때 개미떼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모두 밤송이처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뒹굴어가며 떠내려간다. 한 쪽이 물에 잠길 동안 다른 한 쪽은 숨을 쉰다. 모두가 서로 돕고 굳게 단결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는 죽고 다른 개미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기 위한 것이다. 고슴도치는 저희끼리 서로 몸을 붙여 방한보온을 한다. 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따뜻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 미물들도 알고 실천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서로 독불장군이 된다(김용기 1998, 297).

일가 선생은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한 봉사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공익을 우선할 때 자신을 포함한 국가 사회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와 같은 일가 선생의 봉사정신은 모든 사람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청교도의 소명 사상과 동일한 것이다. 윌리엄 퍼킨스에 의하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지체는 몸을 위해 일함으로써 상부상조한다. 곧 눈은 보는 일을, 귀는 듣는 일, 발은 걷는 일을 통해 몸을 유지한다. 인간 사회는 몸과 같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체가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상부상조하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공익과 참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퍼킨스는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들은 인류 사회에 가장 큰 악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erkins 1626, 751).

23) 일가 선생은 자신이 “네 군데나 다니며 황무지를 개척”하고 농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을 때 “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고, “자기네들을 좋게 해 주려고 일부러 고생하며 다니며 그것을 하는데도 욕을 한다”고 지적하였다(김용기 1998, 298).

24) 일가는 이와 같이 봉사 정신의 실천을 주장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였다: “공부한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일 하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가령 법과 나온 사람이면 법률을 몰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의과 공부한 사람이면 주사 한 대면 살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문과 나온 사람이면 글을 가르쳐주고, 경제과를 나온 사람이면 올바른 경제생활을 가르쳐주고, 정치과 나온 사람이면 생활의 제반 질서를 가르쳐 바로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구해서 농사를 잘 지어 온 마을에 모범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대우받고 농촌이 발전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인가?”(김용기 1998, 289). 곧 자아를 희생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발전이 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희생 정신

일가 선생은 이상촌의 세 번째 기초로서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 정신”이며, “이웃 사랑, 동포 사랑, 나라 사랑이 다 그 사랑”에 포함된다고 보았다(김용기 1998, 300). 희생은 곧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초하며, “작은 것을 희생함으로써 큰 것을 획득”하게 하고, “좋지 못한 것을 희생시키는데서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기적을 산출하고, 희생하게 될 때 모두가 “다 같이 살고, 사랑으로써 단합하게 되어, 어떤 일이라도 성취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43-344). 일가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가정이나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희생은 근로나 봉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00). 일가 선생의 말에 유의하여보자:

사랑 없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고, 사랑 없는 부자(父子)는 부자가 아니다. 사랑 없는 형제는 형제가 아니고, 사랑 없는 이웃이나 민족은 이웃이 아니고 민족이 아니다.

사랑 없는 부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으며, 사랑 없는 부자나 형제는 원수이며, 사랑 없는 민족은 이방인들과 같다. 왜 사랑 없는 부부는 짐승인가? 짐승은 사랑으로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 없는 부자, 형제는 왜 원수인가? 부자형제간의 사랑은 천성지친(天性之親)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미워하지 않고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수는 서로 미워한다. 또 사랑 없는 민족은 어찌 이방인이나? 얼굴만 같지 다른 민족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김용기 1998, 299).

이와 같이 일가는 희생 없이는 경건한 가정이나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고, 다만 폭력과 불의가 난무할 것이라고 보면서 가정이나 교회, 국가가 희생적 사랑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가가 희생을 사회의 기초로 내세운 것은 뉴잉글랜드를 ‘언덕 위의 도시’로 만들고자 한 존 윈스롭의 생각이었다. 윈스롭은 1630년 신대륙으로 향해하던 아르벨라 호(the Arbella) 선상에서 「기독교 사랑의 모델」(Modell of Christian Charity)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서 그는 이주자들에게 신대륙에 도착하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형제애의 매는 끈으로 서로를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우리는 거짓이 없는 형제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라고 희생을 주장하였다.²⁵⁾ 윈스롭은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기초 위에 단합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될 때에 “10명이 1000명의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Winthrop 1985, 91). 사랑의 매는 띠로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를 엮어매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일가 선생의 ‘근로, 봉사, 희생’ 사상은 윌리엄 퍼킨스나 존 윈스롭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고, 일가와 청교도는 근로와 봉사, 사랑과 희생에 기초하여 거룩한 신앙적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25) John Winthrop,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in *The Puritan In America: A Narrative Anthology*, edited by Alan Heimert and Andrew Delbanco(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 83, 90.

3. 이상향과 일가의 강조점들

마지막으로 일가 선생이 이상향을 건설하면서 강조했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가 사상의 청교도 사상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일가가 이상향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방법론에서 청교도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가는 이상향의 구현 방법으로 목적 의식과 본분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윌리엄 퍼킨스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며,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Perkins 1662, 751), 일가는 모든 사람이 목적 의식과 본분의식, 그리고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일가는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의 출세나 입신양명, 또는 세계 지배와 같은 가시적인 것보다는(김용기 1998, 304) “최고로 높은 곳, 곧 영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03). 청교도들이 인생의 지고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둔 것과 같은 것이다.²⁶⁾ 또한 일가는 청교도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영역에서 소명대로 본분을 다할 것을 주장했던 것처럼, 본분의식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청교도들은 군인의 본분이 국토의 방위에 있고, 법관은 공의로 법을 집행하고,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였고,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곧 본분 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Perkins 1662, 752). 일가는 이러한 본분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05). 일가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 각기 할 의무가 있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같다면 구태여 구별하여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다. 아내란 말 자체가 벌써 남편이 있다는 말이다. 부모는 자식이 있다는 뜻이다.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가 있는가?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말이다. 또 스승은 제자가 있다는 말이다. 국민은 국가가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국가의 본분이 있고, 국민은 국민의 본분이 있다. 스승은 스승의 본분이 있고 제자는 제자의 본분이 있다. 지식인의 본분은 무엇인가? 무식한 사람을 계몽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경찰은 도둑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고, 군인은 나라를 거하는 것이 본분이다(김용기 1998, 305).

남과 여, 부모와 자녀, 제자와 스승, 통치자와 백성 등 주어진 본분에 따라 소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본분을 잃지 말고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⁷⁾ 그래서 일가는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다. 곧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일”이지만, 데모하거나 “책가방을 들고 술집이나 다방에 출입하는 것” 또는 “당구장이나 빠징코에 가는 것”을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제 1문.

27) 일가는 그 대표적인 예로, 술 먹고 행패부리는 남편을 둔 아내를 들었다. 이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할 일은 그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해 주고 선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내의 본분이므로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도 아내는 아내대로 할 일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용기 1998, 306).

하였다(김용기 1998, 307). 이러한 일가의 주장은, 주어진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을 질타하였던 퍼킨스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Perkins 1662, 752).

둘째로, 소명에 대한 자세에서 청교도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가는 청교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자족했던 것처럼(Perkins 1626, 756),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언제나 만족하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농업이 경제의 기반이며(김용기 1998, 288, 352),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면서(김용기 1998, 210, 62), “농사일이 나의 본분이다.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김용기 1998, 309)라고 하였으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바의 일임을 확신”하며(김용기 1998, 190), “내가 평범한 농사꾼임을 후회하거나 큰 인물이 못되고 작은 인물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50). 또한 일가는, “농사가 나 개인과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며 조물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41). 이와 같이 일가는 자신의 소명을 알았고,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퍼킨스는 노동의 목적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야 한다고 보고, “고리채 놀이, 카드놀이, 주사위놀이”와 같이 사행심을 조성하는 도박, 게임을 위해 장소를 임대해 주는 직업을 소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Perkins 1626, 750). 일가는, 이러한 청교도 사상에 따라, 노동이 공익 위주가 되어야 하고,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비경제적인 것은 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곧 정부가 고급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여 도박을 권장하는 것이나, 토지 생산성이 없는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358, 359). 노동이 공익 위주이어야 한다는 일가의 사상은 직업 선택에 대한 자세에서도 잘 나타난다. 곧 자신의 직업으로 농업을 택한 것은 백성을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신념, 곧 공익 사상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월급쟁이나 장사를 하면 더 편리한 방법으로 살수도 있지만,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은 결코 제 일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옵고, 이 나라의 보다 많은 백성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김용기 1998, 118)였다고 하였다.

셋째로, 가정관과 신앙생활에서 청교도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가정의 질서를 중시하였다. 아랫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순종할 것, 모든 사람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의 “처는 결혼 초에 순종을 맹세한 그대로 실행해 오고”, 자녀들은 “절대로 거스르는 법이 없이 순종”하였다(김용기 1998, 200). 가정이 이렇게 순종적이 된 것은 그의 모범 때문이었다. 그는 언제나 신앙적 모범을 보임으로 가정을 이끌었다. 일가 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보자:

우리 집은 아침 네 시(겨울은 다섯 시)면 종소리에 맞춰 일제히 기상하는데, 그 기상 종을 내가 친다. 그 종을 치려면 가족들보다 10분 먼저 일어나야 한다. 내가 먼저 일어나 종을 치는데, 가족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기상과 동시에 예배, 운동, 청소, 세면 식사를 한다. 그 식사를 8시에 마치고 30분 동안 휴식한 후에 각자의 분담된 일자리에 나간다. 우리 집은 일감을 미리 찾아서 계획을 세우 각 가족에게 분담시킨다. 12시-1시에 점심식사, 1시-2시 라디오 듣기 및 독서, 2시부터 다시 작업하여 5-6시 저녁식사, 6-10시 독서, 신문 읽기, 라디오 듣기, 그리고 10시에는 일제히 취침한다(김용기 1998, 222).

일가 선생은 이러한 질서 위에서 가정을 신앙 중심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종소리를 듣고 “일제히 기상하여” 새벽 예배를 드렸고, 식사를 마친 후 “찬송가를 부르면서 작업장에 나갔으며”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예배를 드렸다(김용기 1998, 186). 곧 청교도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에 걸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²⁸⁾ 일하며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일하는 삶을 살았다. 또한 그는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거절했고, 철두철미하게 주일을 지켰으며, 어떤 박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파수했다.²⁹⁾

넷째로, 절약과 내핍 생활을 지적할 수 있다. 일가는 청교도들이 일하지 않고 사는 자와 운동 및 오락만을 일삼은 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정죄하고 근검절약을 실천했던 것처럼(Perkins 1626, 756), 근검절약을 가정 생활의 원리로 삼았고, 이상향에도 적용하였다. 경제 생활이 의식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의식주의 “비경제적인 면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면서, 사치스러운 옷의 착용을 금하고, 실생활에 맞는 복장으로 개선하여 입혔고, “국산지, 간소화, 내구성, 염색지, 활동 편리, 미관 등에 그 고치는 기준을 두고 남녀복, 외출복 등을 고안해서 만들었다. 남자의 외출복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국산지 양복으로 하고, 구두를 신지 않고 고무신으로 통일했다”(김용기 1998, 223, 228). 식생활에서는 비싼 쌀 주식주의에서 감싼 “잡곡과 고구마” 중심으로 바꿈으로 경제적으로 절약했고(김용기 1998, 89),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먹지 않고, 밥을 잡곡으로 해 먹고”(김용기 1998, 351), 밥을 짓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빵을 “한 주일에 일주일 분 이상을 구워 놓고” 먹었고(김용기 1998, 226), 김치 담그는 노력을 덜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지 않고 고추 가루를 먹지 않고 … 과일은 되도록 날로 먹지 않고 즙이나 잼을 만들어서” 먹었다(김용기 1998, 227). 주생활은 “집에 필요 없는 외관의 사치는 금지”하였다(김용기 1998, 87). 온돌방을 만들지 않았고(김용기 1998, 351), 연료를 절약하고 보온을 위하여 “흙벽돌을 되도록 두텁게” 하였고(김용기 1998, 202), “창을 이중창으로 달아 비쳐든 태양열을 발산하지 못하게”했다(김용기 1998, 224). 또한 일가는 낭비를 막기 위해 일없이 시장에 가는 것을 피하였다(김용기 1998, 201).³⁰⁾ 그는 “한 방울 물이라도 절약하고, 잠깐만의 전기라도 절약할 것”을 역설했고(김용기 1998, 182), “연필 토막도 아껴서 마지막에 대물부리에 끼워서 쓰고… 분필 한 토막도 아껴서 끝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쓸 것을 주장했다(김용기 1998, 183).

다섯째로, 일가의 실용주의적 사상을 들 수 있다. 일가가 실용주의적 사상은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다. 그는 소년 시절에 한학을 배우면서 유교가 허례허식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기독교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유교의 제사 의식이 죽은 자를

28) 윌리엄 퍼킨스는 「기독교인의 가정」(Christian Oeconomy)라는 책을 통해 가정 경건 유지의 수단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주장했고, 이는 영국과 미국 청교도의 전통이 되었다. 이러한 신앙적 전통이 일가 가정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청교도적 신앙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9)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와 국민 의례 거부로 불려가 발길을 채이고 얻어맞은 횡수는 헤아릴 수 없지만” 끝내 이것들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으며, 주일 예배 시간에 일제 앞잡이인 한 형사가 예배 대신 근로 봉사를 요구하고 손찌검을 했지만 담대하게 그를 책망함으로 주일을 성수하였다(김용기 1998, 102, 103).

30) 일가 선생은 이와 같이 근검절약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근검을 실천하였다. 일가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집은 하다 못해 세면할 때의 비누 사용도 남자는 두 번 문지르고, 여자는 세 번 정도 문지르게 한다. 값비싼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을 사용한다. 물론 내가 솔선 실행한다. 비누 한번 더 문질러서 얼마나 더 절약이 된다고 그렇게 할까 싶지만, 그것이 곧 경제 절약의 기본이다. 작은 것을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은 더 못한다. 그것이 가족들에게 주는 나의 교훈이다”(김용기 1998, 242).

섬기는 허례허식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봉양할 것을 가르치는 등 실제적인 가르침을 준다고 본 것이다(김용기 1998, 23). 그는 한학을 배우면서 ‘족용중’(足用重)이라는 군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후 이를 지키다가 옷을 다 적셔서 생쥐 꼴이 되고, 한기로 크게 고생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에는 남을 위해서는 비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희생까지도 불사한다는 말은 있어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지 군자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비오는 날도 ‘족용중’(足用重) 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다. 이렇게 한학을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한학의 가르침에는 그와 비슷한, 다만 형식과 허례에 불과한 것이 지나치게 많았다. 가령 공자가 가르친 시(詩), 예(禮), 악(樂) 중에서도 공자는 예를 가장 중히 여겼는데, 그 예에는 관례, 혼례, 상례 등, 그 예에 대한 서적만도 예기(禮記) 17권과 주례(周禮) 6권이 있으며,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에도 조부모에게는 아침과 저녁으로 어떻게 절을 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웃 어른들께는 어떻게 인사를 한다는 등 그 대상에 따라 허리를 굽히는 정도까지 모두 달랐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른에 대한 인사는 그저 ‘공손히’ 하면 그만인 것이었다. 한학이 형식을 중시한다면 성경은 내용, 즉 마음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 형식이야 어떻든, 다만 양심의 감동으로써 하면 그만인 데 반해서 한학에서는 그 예법을 일일이 익혀 때와 장소에 따라 적의한 예절을 지키라는 것이다(김용기 1998, 30).

이러한 각성을 통해 “두 번 다시 군자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김용기 1998, 31), 매사를 실사구시적 자세로 처리하였다. 그는 세상이 서구화된다고 해서 집을 서양식으로 짓는 것보다는 “생활에 알맞게 짓고, … 부엌이 한국식보다 서양식이 좋으면 그렇게 고치고 … 벽이 많은 것보다 유리창이 많은 방이 생활하기 편리하다면, 그렇게 고쳐야 한다고 했고, 무엇이든지 “좋고 편리하다면 그것을 일단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용기 1998, 140-141). 그는 식사에 있어서도 노동량에 비례하여 식사량을 분배하고,³¹⁾ 격렬한 노동을 해야 하는 한 여름철에는 쌀밥과 떡을 해 먹어야 하나 할 일이 없어 노는 겨울철에는 죽을 쑤어 먹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하였다(김용기 1998, 231). 이와 같은 일가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은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의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얻은 실사구시 정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가의 숭선 수범 사상을 생각할 수 있다. 퍼킨스가 “공적인 소명을 받은 자는 먼저 자신을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Perkins 1626, 757), 일가 선생은 지도자들이 먼저 숭선 수범할 것을 주장했다. 행정관료와 지도자들은 “국가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며, “국가의 장래는 왕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백성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인식하고(김용기 1998, 351) 백성에게 명령만 내리지 말고 스스로 자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지도자의 숭선수범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역대 조상들은 스스로가 생활해온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 의해 생활해온 것이었다. 하인이 해주는 옷을 입고 상놈이 농사지어 갖다바치는 밥을 먹고 양반은 앉아서

31) 일가 선생은 식기를 “1호 식기, 2호 식기, 3호 식기의 등급을 매겨 1호 식기는 중노동자, 2호 식기는 경노동자, 3호 식기는 정신노동자”에 배당하여 밥을 먹게 하였다(김용기 1998, 186).

시키기만 해온 것이었다. 그래서 유교의 예법은 거의 대부분이 백성이 임금을 섬기는 예법이요, 임금자신이 지킬 예법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본뜬 것이 우리 일반 가정의 예법이기도 하다. 집안에는 자식들의 부모 섬기는 법만 있지 부모가 지킬 법은 없다. 부모는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 폐습은 비단 거기에서만 그치는 건 아니었다. 큰자식은 작은 자식에게 시키고 작은 자식은 그 다음 동생에게 시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또 그 밑의 딸에게 시킨다. 그리고 보니 가장한테 떨어진 명령을 실행해 옮기는 것은 더 아래로 시킬 데 없는 맨 막내아들이 할까 말까한 것이다. 가정이 그렇고, 일반 사회가 그렇고, 정부가 다 그런 식이다. 각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선 도로 시달될 것이다. 그러면 도의 지사는 각 군수들을 불러 그것을 시달하고 도지사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군수는 그 명령을 받들어 이번에는 면장들을 부른다. 군수의 임무도 그것으로 끝난다. 면장들은 또 이장을 부르고, 이장은 반장, 반장은 매호의 호주에게 시달한다. 그 호주가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집에 와서 장남에게 시킨다. 장남은 차남, 차남은 삼남,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는 말아버리는 것이다(김용기 1998, 198-199).

일가 선생은 이러한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상급자들이 먼저 솔선 수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그대로 두면 점점 더 고질화 될 뿐”이므로, 그리스도인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회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김용기 1998, 241). 곧 개혁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일가 선생의 근로·봉사·희생의 3대 이념과 그가 교훈하며 보여준 삶을 통하여 청교도적인 사상을 찾아보았다. 일가의 직업 윤리 사상은 근검과 절약에 기초를 두었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한 청교도적인 것이었다. 그는 노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을 강조하였고, 이 점에서 그에게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쾌락과 영예를 희생시키면서 엄격한 규율과 조직 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헌신함으로써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였다. 또한 근검과 절약, 합리성을 토대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한국적 자본주의 운동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일가의 직업 윤리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존 칼빈의 예정론이 16세기 제네바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 널리 퍼지면서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를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노동 윤리가 18세기 산업혁명 전후, 부의 축적과 이에 근거하여 부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현대적인 자본주의 운동을 만들어 내었다고 주장한 또 다른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칼빈주의적 근면과 절약, 소명 사상이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버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노동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 내었다는 주장은 청교도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구원을 확증 받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강조한 것이다.³²⁾ 그들은 하나님의

32) 막스 베버는 칼빈의 신학을 선택 교리와 함께 설명하고, 선택 교리는 “인간을 위해 신이 존재하는

상속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고, 에른스트 트뢰츨(Ernst Troeltsch)가 지적한 것처럼, 노동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회의 전체 유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³³⁾

결론적으로, 일가 선생은 뉴잉글랜드 황무지에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한 존 윈스럽처럼 이 땅에 신앙적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한 개척자였고, 근면·봉사·희생의 원리를 청교도들이 신대륙 건설의 기초로 강조하였던 것처럼 그것들을 이상향 건설의 기초로 삼았던 이상향의 설계자였다. 그는 언제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려고 하였고, 성경이 침묵하는데서 침묵하면서 성경을 이 민족과 사회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던 개혁주의자요, 청교도였다. 이러한 일가의 꿈과 사상은 한국 근대화의 기초를 놓은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이 되었고,³⁴⁾ 그 결과 1965년 당시 국민 소득 150달러의 가난한 나라가 10,000 달러가 넘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주장한 바 있는 근면과 절약 사상은 일제의 학정과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극난 극복 정신”이 되었고(박진환 2001, 8), 숭선수범의 정신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는 철두철미한 실천적 신앙인이요, 한국적인 청교도요, 청교도 운동을 이 땅에 전개한 진정한 농민이었고, 민족의 선각자였다.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며, ... 모든 사건은 신의 위엄과 자기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지상적인 정의의 척도를 가지고 신의 지고의 사업을 측량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신의 위엄을 침범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구원이 주관적이므로 칼빈주의자들은 “현세적 유대로부터 개인을 정신적으로 격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적인 고립화의 압력 하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부단한 직업 노동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 직업 노동에 의해서만 종교적 유혹이 제거될 수 있고, 구원의 확실성이 보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막스 웨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권세원, 강명규 공역 (서울: 일조각, 1971), pp. 87, 92, 95.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을 확증하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 것이다.

33)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 translated by Olive Wyon (London: George Allen & Union Ltd, 1950), p. 622.

34) 1970년부터 79년까지 대통령 경제담당특별보좌관으로 지냈던 박진환 박사는 “일가 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개발 - 가나안농군학교와 새마을교육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일가의 근면·봉사·희생의 정신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진환 2001, 24).

◆ 연구발표 1 토론

일가 김용기와 청교도 사상

신 현 수(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평소 존경하는 오덕교 교수님의 귀한 논문을 읽고 논평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요 귀한 믿음의 실천자인 일가 선생의 사상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먼저 토론을 위해 이 논문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논문에서 오덕교 교수님은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는 청교도적이었음을 전제하고 일가 선생의 이상촌 운동과 이 운동의 기초가 되는 이념들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강조했던 몇 사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일가의 청교도적 사상을 살핀다. 먼저 오덕교 교수님은 일가 선생의 이상촌 운동의 계획 및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신앙 중심의 민주적 공동체를 세워 민족의 경제 자립과 자주 국가의 기초를 세우려한 일가 선생의 이상촌 운동은 일제의 박해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었다고 오덕교 교수님은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 이상촌 운동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를 이루고자 하였던 청교도의 이상과 같다고 한다.

이어서 오덕교 교수님은 이 이상촌 운동의 근본 이념인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청교도의 사상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첫째로, 노동은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조상들의 죄를 속죄함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할 수 있도록 손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노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이며 따라서 노동을 경시하는 종교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둘 때 현실 도피적 기도원 운동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가의 노동 사상은 청교도와 같다고 오덕교 교수님은 강조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부르신 위치에서 노동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노동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은 ‘위선’이며 그러한 생활은 ‘저주받은 생활’로 간주되었다. 둘째로, 봉사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고 그가 직접 본을 보이신 것이다. 봉사의 당위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공익을 우선할 때 자신을 포함한 국가 사회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가 선생의 봉사 정신은 모든 사람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청교도의 소명 사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덕교 교수님은 지적한다. 셋째로, 희생 정신은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서 나타났다. 이 희생에는 이웃 사랑, 동포 사랑, 나라 사랑이 포함된다. 일가 선생에게 이 희생은 경건

한 가정이나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희생을 사회의 기초로 내세운 이러한 일가의 사상은 것은 서로의 희생을 통해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청교도들의 정신과 같은 것이라고 오덕교 교수님은 해석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일가 선생의 ‘근로, 봉사, 희생’ 사상은 근로와 봉사, 사랑과 희생에 기초하여 거룩한 신앙적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청교도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오덕교 교수님은 일가 선생이 이상향을 건설하면서 강조했던 몇 가지에서도 청교도적 사상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선하고 가정, 교회 및 사회의 영역에서 소명대로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소명 혹은 직업에 만족했다. 셋째, 신앙 중심의 가정생활을 중시하였고, 주일을 성수했으며,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어떠한 핍박도 기쁘게 감당하였다. 넷째, 근검절약을 실천하였다. 다섯째, 실용주의적 사상이다. 여섯째, 지도자의 솔선수범 사상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일가 선생은 성경 중심의 믿음 생활 실천을 사회의 기초로 삼고자 한 “철두철미한 한국적인 청교도” 라고 결론을 맺는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것의 직접적 원인은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1970년대 이래로 한국의 한국교회들이 사회를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사회 내에서 바른 믿음의 실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회와 떨어질 수 없다. 그 신앙의 바탕이 되는 복음은 총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복음이 갖는 사회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가 선생이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의 바른 실천 운동을 통해 한국 민족과 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려고 한 것은 한국교회의 큰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일가 사상은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 신대륙에서 꽃을 피운 청교도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청교도들은 그 당시 국가 교회들이 정통주의를 부르짖으나 활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살아 있는 개인적 신앙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회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오덕교 교수님이 일가 사상을 청교도 사상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 유익한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청교도 신학을 전공한 역사신학자로서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가 사상이 갖는 청교도 사상의 기반을 명쾌하게 밝힌 것은 이 논문이 갖는 공헌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논문이 일가 선생의 사상이 청교도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논거들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청교도들의 성경 중심에 따르기 위한 실천적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일, 공익을 위한 섬김과 공익을 위한 재산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가 사상과 청교도들의 사상은 매우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나아가, 일가 선생의 사상과 청교도의 사상의 근거를 비교적 자세하고도 충분히 예시하고 있는 점은 이 논문의 논지를 더욱 강화해 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1) 본 논문의 제목 ‘일가 김용기와 청교도 사상’이 시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일가 선생이 어떻게 청교도 사상을 갖게 되었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그 구체적 과정을 오덕교 교수님의 역사신학자로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으면 한다. 이것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일가 사상의 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2) 일가의 사상과 청교도의 사상이 유사한 점을 자세히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다 보니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가 즉 어떤 면에서 청교도 사상에 미흡하고 또한 청교도 사상을 뛰어 넘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적었다. 한 인물의 사상을 바로 조명하는 데에는 창조적 비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3) 위에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일가의 사상과 청교도의 사상을 서로 비교할 때 그러한 사상들을 갖게 된 요인들, 가령, 전통과 구체적 삶의 상황 등이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점이다. 한 사상의 형성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우연적인 무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속한 삶의 공동체가 이전 세대보토 물려받은 전통과 그 시대의 삶의 상황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 4) 어떤 문제에 대한 청교도 사상의 특징을 말할 때 보다 자세하고 객관적인 논증이 있었으면 한다. 청교도 사상이 John Winthrop 혹은 Perkins 사상으로 너무 쉽게 일반화되고 있다. 읽는 이들은 과연 그들의 사상이 청교도들의 일반적 견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청교도 사상이 그들의 사상에 의존하고 있는 객관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밝히면 청교도 사상의 핵심과 특징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5) 아주 작은 것이어서 지나칠 수 있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몇 가지 표현이 논문의 전체에 걸쳐서 중복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 예를 들면,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한 존 윈스롭처럼‘ 이다. 둘째, 가능하면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읽는 이들이 귀한 연구의 가치를 더욱 쉽게 이해할 것이다.

전체 토론을 위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오덕교 교수님께 던진다. 일가 선생이 청교도적 사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가 선생과 청교도들의 삶의 상황이 비슷해서 일까 아니면 그 당시 한국 기독교회가 청교도적인 신앙 형태 때문일까? 만일, 후자라면, 그 당시 모든 한국 교회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교적 자유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을 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성이 일가 선생과 청교도들이 그들의 삶의 상황은 달랐어도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은 방식으로(실천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치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 뛰어난 논문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준 오덕교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연구발표 1 토론

일가 김용기와 청교도 사상

조상식(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흔히 교육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예컨대 헤르바르트와 페스탈로찌를 연구할 때, 사뭇 편이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헤르바르트는 사상가로서만 성공했기에 순수한 이론적 유산만을 들여다보면 되지만, 페스탈로찌는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는 교육 사상사적으로 비중 있고 방대한 연구물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연구자들에게 경외와 감흥까지 제공합니다. 토론자가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삶과 사상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느낀’ 바도 바로 페스탈로찌를 읽을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특히 스위스라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네 조상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땅에서 일구어 온 그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의 실천은 토론자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도 아니며 일가의 저서와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토론자가 단지 서구 사상을 공부한 밀천으로만 그에 관한 글을 읽고 논평해야 하기에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래의 토론 글은 이러한 제한적인 의미에서 쓰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 신학적 의미를 떠나 사상사적으로 보았을 때, 칼빈주의(calvinism, Calvinismus)는 18세기 계몽주의를 준비해준 일종의 종교의 “세속화”(secularization, Säkularisierung) 과정을 반영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존재론적 위계질서와 권위적 세계상이 흔들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logos)을 현세에서 재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칼빈주의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 Weber)는 이러한 이념사적 변모과정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모티브로 포착, 분석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를 남겼습니다. 칼빈의 예정설은 이후 유럽의 각지와 미국으로 널리 퍼지면서 영미와 한국의 주도적 기독교 신앙형태인 청교도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빈주의 및 청교도주의를 사상사적으로 상대화한다면, 기독교 내적인 고유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윤리와 자본주의 발전의 인과론적 관련성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피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덕교 교수의 표현을 통해 말한다면, “청교도들은 구원을 확증 받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물적, 사회적 진보가 단순히 노동윤리를 창출해낸 서구 유럽인의 ‘순전히 세속적인’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반이 되었던 종교적 열정과 실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었을 때, 일가 김용기의 삶과 사상은, 종교적(기독교적) 자각 — 실천철학으로서 노동윤리 — 개혁적 사회개조라는 통합적인 고리를 연결시킨 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덕교 교수의 논문의 기여는, 구체적으로 청교도주의라는 기독교 신앙형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토착 청교도”(김기석, 1998)인 일가 김용기 장로가 어떤 점에서 청교도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일가의 전기와 남겨진 저서들을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이를 영미의 청교도주의의 표준인 퍼킨스(W. Perkins)와 윈스롭(J. Winthrop)의 문헌에 체계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분석적 엄밀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자는 농민운동가요 사회운동가로서 김용기 장로가 보여준 이상촌 운동이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와 상당히 유사한 청교도적 실천이었음을 일가의 생애사적 증거를 동원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필자는 자칫 전기에 몰입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 ‘자족적 청송’을 보이지 않고, 일가의 사상을 근로, 봉사, 희생 정신으로 요약하면서 청교도주의와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엄밀한 문헌 분석에 입각하여 특정한 사상가를 체계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아마도 “이상향과 일가의 강조점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이념사 연구의 방법론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일가 사상과 청교도 사상 사이의 유사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상향의 구현방법으로 일가가 주장한 목적의식, 본분의식, 사명의식, 일가의 직업 소명관, 가정관과 신앙생활, 절약과 검소한 생활, 실용주의 가치관, 술선수범 자세 등은 퍼킨스의 청교도주의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덕교 교수의 논문은 후세에 귀감이 되는 특정 인물의 삶과 사상을 체계적인 문헌해석을 통해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의 독자적인 의의는 일가의 ‘한국적 기독교 실천’을 그 원류에 비추어봄으로써 이념사적 연속성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상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환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의미도 던집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폐쇄성과 현실도피를 이미 일가의 신앙생활(“현세의 삶은 내세로 가는 발판이며 그 준비 단계이므로 현세 생활을 내세보다 가볍게 보아서 안 된다”)에서 극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구발표 2

유교와 일가(一家) 김용기 장로의 사상

－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 태 건(교육학박사,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목 차

1. 글머리에
2. 일가 사상 형성에 끼친 유교적 영향의 원천
 - 가. 혈통으로부터 온 영향
 - 나. 교육과 교유(交遊) 관계로부터 온 영향
3. 일가 선생의 유교에 대한 태도
 - 가. 부정적 태도
 - (1)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 (2) 형식 위주의 허례허식(虛禮虛飾)이라는 생각
 - (3) 농사꾼 천시(賤視) 사상이라는 생각
 - (4) 나라가 못 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상이라는 생각
 - 나. 기독교 윤리와의 혼동으로부터 기독교 윤리에 대한 확신으로
4. 일가 선생의 삶에 나타난 유교 윤리의 영향
 - 가. 삼재(三才) 사상
 - (1) 경천(敬天) 사상의 영향
 - (2) 애인(愛人) 사상의 영향
 - (3) 애지(愛地) 사상의 영향
 - 나. 충효(忠孝) 사상
 - 다. 실학(實學) 사상
5. 끝머리에

1. 클머리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를 소명(召命)의 사람이라고 칭한다. 이 세상에는 민족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를 창조적(創造的) 소수(少數)라고 일컫는다.

한 손에는 성서(聖書)를 쥐고, 한 손에는 펜을 들고, 머리에 애국(愛國)의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는 겸손(謙遜)의 띠를 두르고, 발에는 개척(開拓)의 신을 신고, 복지한국(福祉韓國)의 건설을 위하여 60평생을 살아온 김용기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보배요, 우리 국민의 밝은 등불이다.³⁵⁾

위 인용문은 철학자 안병욱 박사가 김용기 장로(1909-1988)의 저서, 『나의 한 길 60년』(1980)을 위하여 쓰신 서문의 처음이다.

명실상부한 ‘소명의 사람’이었고 ‘창조적 소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일가(一家) 선생의 사상과 유교 윤리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필자에게는 뜻밖의 영광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³⁶⁾

연구는 주로 문헌 분석(文獻 分析)의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준거로 삼은 자료는 주로 일가 선생의 저서들³⁷⁾,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서전의 성격이 강한 『가나안으로 가는 길』(초판 : 1968, 개정판 : 1998)과 『나의 한길 60년』(1980), 그리고 마지막 저서인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1982년) 등 세 권이다. 필자는 이 책들을 정독하면서 그 내용들 가운데 유학 사상,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교의 윤리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들을 뽑아 낸 다음, 그것이 그 사상의 어떤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헤아려보는 방법으로 주제사항을 천착하였다. 물론 일가 선생의 생애와 업적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유교 윤리 사상과의 연관성도 간과하지 않으려고 유념하였다. 몇 편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추론(推論)과 유추(類推)에 도움이 되는 관련 논문이나 잡지도 참조하였다.³⁸⁾

35) 안병욱, ‘서문’, 김용기, 『나의 한 길 60년』, 7쪽.

36) 일가사상연구소 림영철 소장으로부터 처음 연구·발표 의뢰의 전화를 받았을 때 필자는 극구 사양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윤리교육을 전공하였다는 사실과 연구 주제에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는다는 사실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림 박사의 강권을 못 이겨 결국 수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계속되는 후회와 고뇌 속에서 진행되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발표에 임하게 되었지만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

37) 일가사상연구소 사이트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일가 선생의 주요 우리 말 저술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저서들의 내용은 연구소의 홈 페이지(www.ilga.or.kr)에 게재되어 있다.

- ① 참 살길 여기에 있다, 배영사, 1965.
- ② 가나안으로 가는 길, 창조사, 1968.
- ③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창조사, 1970.
- ④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삼화출판사, 1973.
- ⑤ 중, 젊음에게, 배영사, 1974.
- ⑥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사, 1978.
- ⑦ 이것이 가나안이다, 규장문화사, 1979.
- ⑧ 가나안농군학교, 창조사, 1979.
- ⑨ 나의 한 길 60년, 규장문화사, 1980.
- ⑩ 조국이여 안심하라, 규장문화사, 1980.
- ⑪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규장문화사, 1982.

2. 일가 사상 형성에 끼친 유교적 영향의 원천

일가 선생의 사상 형성에 끼친 유교적 영향의 원천은 대체로 혈통(血統)으로부터 온 것과 교육과 교유(交遊) 관계로부터 온 것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가. 혈통으로부터 온 영향

일가 선생은 ‘조상 대대로 유교사상에 젖을 대로 젖은,’ 이조 말엽의 세도가문, 안동 김씨 집안의 후손³⁹⁾이었다. 따라서 일가 선생의 부친 김춘교 씨가 한학자(漢學者)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가 선생의 부친은 학문을 빌미삼아 일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다른 양반들과는 달리 ‘한학자이시자, 농사꾼’이었다.⁴⁰⁾

일가 선생이 세 살 나던 해에 병이 깊어져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른 적이 있었다. 아들의 위독함에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부친은 우연히 들른 전도자가 놓고 간 전도지에 적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을 읽게 된다. 그 말씀 가운데 ‘멸망’이라는 구절과 ‘영생’이라는 구절이 특히 한학자인 부친의 눈길을 끈다. 이 두 단어가 그로 하여금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順天者興, 逆天者亡).”는 한학에 나오는 구절을 연상시켰고, 위 구절 가운데 ‘망(亡)’자와 성경에 나오는 ‘멸망(滅亡)’이, 그리고 ‘흥(興)’자와 ‘영생(永生)’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한학에는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단순히 ‘망한다.’라고 되어 있음에 비하여 성경에는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학에서는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단순히 ‘흥한다.’는 정도인 데 비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단지 ‘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이에 부친은 “죽어가는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살려 내려면 하나님을 믿

38) 유 · 불 · 선 3교 등 동양철학의 여러 방면에 정통해 있던 유영모 선생과의 교유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김흥호(金興浩)가 1970년 11월에 창간한 『思索』이 있다(이 잡지는 1982년 제144호까지 나왔다.). 창간호에 실린 김흥호 교수의 글 가운데 유영모 선생과 일가 사이의 교유를 짐작케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와 상통하는 일가 자신의 언급이 『나의 한 길 60년』에 나온다.

일가사상 관련 논문으로는, ① 이만열, “한국 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일가의 생애”, 『제1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서울 : 일가사상연구소, 1998), ② 한규무,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같은 자료집, ③ 김기석, “국난극복을 위한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사”, 같은 자료집, ④ 박진환, “일가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 개발”, 『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서울 : 일가사상연구소, 2001), ⑤ 황종건,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 선생”, 같은 자료집, ⑥ 손봉호,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 선생”, 『제3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서울 : 일가사상연구소, 2002), ⑦ 김지자,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 같은 자료집, 등 7편을 참고하였다.

39) 『가나안으로 가는 길』, 22쪽.

40) 같은 책, 19쪽.

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양친이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곧 일가 선생의 병도 완쾌됨으로써 두 사람의 믿음은 더욱 독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¹⁾

우리는 이 일화에서 당시 일가 선생의 가문에 유학의 영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스며들어와 있었는가를 알게 된다. 성경 구절을 보고 그 내용을 유학에서 익힌 구절과 관련시켜 해석한 다음, 그 해석으로부터 얻은 결론에 따라 기독교인이 될 정도이니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가 선생 자신도 한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기독교적 내용으로 소화하여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 진전의 양상은 일가 선생의 다음 언급에서도 분명히 발견된다.

조구북(趙歐北)의 논시(論詩)라는 칠언절구(七言絕句)에 보면 “삼분인사, 칠분천(三分人事, 七分天)”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열 중 셋이요, 나머지 일곱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말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 물론 ‘하늘’의 개념은 다룰지라도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그 큰 힘을 발견한 그 자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 만족할 수가 없다. 나더러 구태여 말하라고 한다면, “일분인사, 구분천(一分人事, 九分天)”이라고 하겠다...인생지사(人生之事) 열 가운데 아홉이라는 절대값은 ‘하늘’의 뜻에 속한다는 것이다.⁴²⁾

이런 사례도 있다. 6·25 전란의 와중에서 시작된 ‘에덴 향(鄉)’ 개척이 1년 반 만에 힘겨운 노동과 험한 음식으로 사람들의 영양을 나쁘게 하고 건강을 해침으로써 시련에 부딪혔다. 일가 선생 자신까지도 몸져누워 있을 정도였다. 군에 입대한 만아들 종일을 대신하여 당시에 17세 된 둘째 아들 범일이가 부친을 간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가출해버린 것이다. 이 일에 상심한 일가 선생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유학의 가르침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말과 “네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많은 사람을 다스리리요?”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고 한다.⁴³⁾

이상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우리는 일가 선생이 가문 대대로 이어온 유학의 전통과 어릴 적에 부친에게서와 서당에서 배운 한학의 영향으로 늘 유교적 가르침을 상기(想起)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곧 기독교적으로 소화하여 오히려 더 유용한 자양분으로 활용하곤 하였던 것이다.

나. 교육과 교유(交遊) 관계로부터 온 영향

일가 선생은 열세 살 될 때까지 마을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⁴⁴⁾ 집에서 가까

41) 『가나안으로 가는 길』, 22-23쪽.

42) 김용기, ‘저자 서문’, 『나의 한 길 60년』 (1982), 3쪽.

43) 김용기,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 세계사에 조명해본 우리 조국』 (1982), 319-320쪽.

44)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25쪽.

운 곳에는 학교가 없었고, 서울이 그리 먼 곳은 아니었지만 아직 집을 떠나 공부할 나이가 못 될 뿐 아니라 집안 형편도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즈음 나는 아직 학문이 무엇인지, 글은 왜 배워야 되는 것인지조차 잘 모르던 때라, 그저 아버지께서 다니라는 대로 서당에 다녔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한문 공부 성적이 과히 나쁜 편은 아니었던 듯 나는 선생님한테서 늘 칭찬을 받았다...

그 때가 서당에 들어간 초기라 나는 아직 ‘소학(小學)’을 배우고 있었는데, 소학이란 어린 사람으로서의 몸가짐과 어른에 대한 가지가지의 예의, 공대, 범절 등을 수록한 수신(修身)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그러나 선생님 자신이 가르치기는 하면서도 이행하지는 못하는 것을 어린 내가 배운 대로 이행하니 놀랐을 것은 당연했다.⁴⁵⁾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일가 선생이 서당에서 유교의 기초 경전을 읽을 만큼 한문에 능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유교의 예의범절을 잘 익혀왔음을 짐작하게 된다.

장성한 뒤에도 일가 선생은 교유 관계 속에서 계속 유학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흥호(金興浩)에 의하면, 제3대 오산학교 교장을 지낸 유명모 선생(1890-1981)은 기독교인이면서 유·불·선 등 동양철학의 여러 방면에도 정통해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 김흥호 교수는 1970년 11월에 월간 철학 잡지, 『사색』을 창간하고, 거기에 유명모 선생에 대한 추억을 글로 적어 실었다. 이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유명모 선생님은 52세에(1941년경으로 여겨진다. -필자 주) 마태복음 7장 52절을 읽고 북한산 비봉 밑으로 들어가셨다. 문수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비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주친 곳에 자리 잡고 계시다. 왼편으로 보현봉이 솟고 서남으로 인왕산 줄기가 보이는 곳이다.⁴⁶⁾

....선생님은 열여섯에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선생님은 식색(食色)을 초월한 칸디를 좋아 하신다....그러나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좋아 하시는 분은 석가와 공자와 노자다. 지금 사색 마지막 면에 우리말로 옮긴 노자가 선생님 것이다. 그리고 중용도 번역하셨다. 우리들의 연경회에서는 논어는 언제나 선생님 입에 붙어 다닌다. 그리고 불경도 자주 화제에 올랐다. 우리 모임에는 불교계 승려도 가끔 참석하였다. 그리고 성리학도 늘 말씀하셨다.⁴⁷⁾

그런데 유명모 선생에 대한 일가 자신의 언급이 『나의 한 길 60년』에 나온다. 그 언급을 직접 인용한 것이 다음 글이다.

「봉안 이상촌」은 내 손이 필요 없을 만큼 틀이 잡혀 있었다. 그래 「봉안 이상촌」

45) 같은 책, 26-27쪽.

46) 김흥호, “유명모”, 월간 사색, 제1호(서울 : 평화당, 1970. 11.), 3쪽.

47) 같은 책, 9쪽.

을 형님들에게 말하고 나는 가족을 이끌고 삼각산 밑 구기리 과수원으로 이사를 했다. 말이 과수원이지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이 과수원으로 가족을 이끌고 이사한 건 1946년 10월이었다. 우리 가족은 곧바로 황폐한 과수원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밤 10시까지 고된 작업이 또다시 계속되었다. 나는 과도기의 거센 혼란과 담을 쌓고 오직 일만 할 뿐이다.

이렇게 개간하기를 또 일 년—마침내 과수원은 틀이 잡혔고, 흥가라고 버려졌던 별장은 쓸모있게 꾸며졌다. 이렇듯 「삼각산 농장」이 제 면모를 갖추게 되자 크고 작은 회의 장소로 쓰이기 시작했다. 당시 YMCA 총무이던 현동완(玄東完) 선생이 우리 농장을 각종 회의장으로 자주 썼고, 전에 오산학교(五山學校) 교장을 지내던 유영모 선생이 이곳에 살아 아침저녁으로 만나 여러 문제를 두고 진지한 토론도 했고, 선생이 친히 우리 집을 이용하여 각종 강연도 했다...⁴⁸⁾

이렇게 유영모 선생과 교유를 갖게 된 일가 선생이 그의 유·불·선 3교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가 선생은 어려서 이미 한문을 익히고 유학의 기초 경전을 읽은 바 있다.

3. 일가 선생의 유교에 대한 태도

가. 부정적 태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미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있던 일가 선생에게 있어서 유교의 가르침에 대한 태도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의 다음 몇 가지 언급들이 이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다.

(1)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먼저 기독교인이 된 일가 선생의 부친이 한학(漢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태도에 대한 일가 선생의 언급을 들어보자.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학자이시면서도 이미 신앙생활로써 신사상(新思想)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한학이 시대에 맞지 않는 학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셨다.⁴⁹⁾

부친을 존경하고 그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일가 선생이 부친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2) 형식 위주의 허례허식이라는 생각

48) 김용기, 『나의 한 길 60년』 1980), 75쪽.

49) 『가나안으로 가는 길』, 25쪽.

다음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제사 참여를 거부하다가 문중 어른들에게서 공격을 당하게 되자, 오히려 그 어른들을 설득하고 나선 일가 선생 부친의 주장 속에 그가 지니고 있던 유교 윤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윤리(곧 유교 윤리를 가리키는 말임 - 필자 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단지 허례허식(虛禮虛飾)의 윤리이다. 그에 비해 성경 속의 윤리는 실제 생활에 근거를 둔 윤리이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받드는 것이 가치 있는 효도이겠느냐? 살아계신 동안 그 제사음식만큼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을 잘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효도이겠느냐? 살아계신 동안 보양해드리는 것은 실제로 부모가 잡수시지만 돌아가신 후의 제사 음식은 제 아무리 성찬으로 차려도 결국 우리 자신이 먹는 것이다.”

일가 선생은 유교윤리를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위주의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농사꾼 천시(賤視) 사상이라는 생각

일가 선생이 유교 사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까닭 가운데는 그것이 농사꾼을 천시하는 사상이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다음 언급이 그 증좌이다.

...농사꾼을 천대하는 사람은 아마 동양, 동양 중에서도 유교사상이 짙은 중국을 위시한 우리나라일 것이고, 그중에서도 제일 개화가 늦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귀족, 양반, 선비들, 즉 불한당(不汗黨) 계급이 만들어놓은 사상으로 그들 자신이 일하지 않고 먹기 위한 수단으로 농사꾼을 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된 이 농사꾼 천시사상은 결국 우리나라 이조 500 년을 지배해온 양반계급을 만들었고, 사색당파(四色黨派)의 파쟁의 불씨를 만들었고, 국가 경제발전의 저해를 가져왔고, 국력, 문화, 문명의 약화 내지는 후진을 가져왔고, 마침내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운명을 초래하게 한 것이 아닌가?⁵⁰⁾

(4) 나라가 못 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상이라는 생각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가 선생은 유교가 나라가 못 살게 된 원인이 되는 사상들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다음 인용문이 그 증좌이다.

불과 몇 백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세계열강 중에서도 그 으뜸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천 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조(李朝) 5백 년을 지배해온 계급사상, 봉건사상, 사대사상이 유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⁵¹⁾

50) 『가나안으로 가는 길』, 64쪽.

51) 『가나안으로 가는 길』, 92쪽.

나. 기독교 윤리와의 혼동(混同)으로부터 기독교 윤리에 대한 확신(確信)으로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니면서 일가 선생은 유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혼동할 수밖에 없는 묘한 지적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 시절 나는 묘한 교육을 받았던 셈이다. 왜냐하면 예수와 공자를 한꺼번에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은 집안의 아버지였고, 공자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은 서당의 선생님이셨다. 그때 나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어쩌면 예수님이나 공자님을 같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가르침이 적힌 ‘성경’과 ‘한학’의 말씀들이 서로 비슷했으며, 두 분이 똑같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과 한학의 ‘천(天)’을, 성경의 ‘사랑’과 한학의 ‘인(仁)’을, 성경의 ‘봉사’와 한학의 ‘선(善)’을 같은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⁵²⁾

그러나 일가 선생의 이러한 혼동 상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우연한 계기 때문에 그는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서당에 갈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니 집에 돌아올 저녁때 비가 왔다. 서당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았으므로 뛰어 오자면 비를 과히 맞지 않고도 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뛰어오지를 않고 그냥 평보(平步)로 왔기 때문에 결국 옷을 모두 적시고야 말았다. 왜 뛰어오지 않고 평보로 걸어서 왔느냐? 그 건 말할 것도 없이 군자(君子)의 걸음걸이가 마땅히 ‘두용직, 수용공, 족용중(頭用直 手用恭, 足用重)’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거기까지는 자랑일지언정 결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에게는 그 비 맞은 옷을 갈아입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 부득이 그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체온으로써 말리는 수밖에 없었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된 건 그렇다 치고, 나는 무엇보다 몸에 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성경과 한학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 계기란 바로 그 일에서였다.⁵³⁾

그 후부터 일가 선생은 한학에 대해 일대 회의를 품게 된다.

“비를 피하기 위하여 걸음을 빨리 하면 그것이 어찌 군자의 도리에 어긋날까? 비를 맞고 한기가 심해 죽어도 역시 군자의 도리는 지켜야 할까? 그 군자의 도(道)를 지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다. 그러므로 장차 출세하는 것도 아니며, 장차 천당에 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비만 맞게 되고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춥기만 한 것뿐인 것이었다.

52) 『가나안으로 가는 길』, 28쪽.

53) 『가나안으로 가는 길』, 29쪽.

일가 선생은 유교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에서 머물지 않고 성경과 비교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기독교의 가르침 쪽으로 완전히 선회(旋回)하고 만다.

성경에는 남을 위해서는 비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희생까지도 불사한다는 말은 있어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지 군자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비 오는 날도 ‘죽용중’해야 된다는 말은 없었다. 이렇게 한학을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한학의 가르침에는 그와 비슷한, 다만 형식과 허례(虛禮)에 불과한 것이 지나치게 많았다.⁵⁴⁾

일가 선생은 이 일에 대한 성찰 끝에 유교 윤리의 형식성(形式性)과 허례허식성(虛禮虛飾性)을 절실히 깨닫는다. 다음 인용문에서 우리는 그 핵심을 만날 수 있다.

가령, 공자가 가르치신 시(詩), 예(禮), 악(樂) 중에서도 공자는 예를 가장 중히 여겼는데, 그 예에는 관례, 혼례, 상례 등, 그 예에 대한 서적만도 예기(禮記) 17권과 주례(周禮) 6권이 있으며,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에도 조부모에게는 아침과 저녁에 어떻게 절을 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웃 어른들께는 어떻게 인사를 한다는 등, 그 대상에 따라 허리를 굽히는 정도까지 모두 달랐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른에 대한 인사는 그저 ‘공손히’ 하면 그만인 것이었다. 한학이 형식을 중시한다면, 성경은 내용, 즉 마음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 형식이야 어떻든 다만 양심의 감동으로써 하면 그만인 데 반해서, 한학에서는 그 예법을 일일이 익혀 때와 장소에 따라 적의(適宜)한 예절을 지키라는 것이었다.⁵⁵⁾

그러나 일가 선생은 여기서 양심의 문제와 관련하여 난관에 부딪혔다고 술회하고 있다. 양심의 감동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은 것이다. 계속하여 일가 선생 자신의 언급을 들어보자.

한학의 예법(禮法)이 아무리 까다롭다 해도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이어서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사람은 아무리 주리를 틀어도 견디거늘 하물며 예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지키기 위한 불편을 못 참을 것은 없다. 비를 맞고 좀 추우면 참으면 된다. 하지만 양심의 감동대로 하라면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양심에 하등의 감동도 받지 않았다 하면 어른에게 인사를 안 해도 된단 말인가? 도둑질하는 사람의 양심이 다를 것이고 현자(賢者)나 군자의 양심이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가 선생은 이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는 원칙이 가져다주는 혼란을 다음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에 대한 깨달음으로 극복하고 있다.

사람은 이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 사람의 양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다는 것, 그런데도 그것이 외형(外形)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聖靈)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양심을 속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54) 같은 책, 29-30쪽.

55) 같은 책, 30쪽.

그 간단한 상식을 나는 그 당시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⁵⁶⁾

유교 윤리가 갖는 형식 위주의 허례허식적 특성을 깨달음으로써 예절과 양심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회의(懷疑)를 극복하기에 이르자, 일가 선생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된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의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 허락하는 일과 금하는 일이 있다. 허락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금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악행(惡行)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이다. 그런데, 내가 군자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비를 맞은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금하시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즉 무모(無謀)한 짓일 따름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가까우시며 생활적(生活的)이고 실용적(實用的)인 가르침을 주시는가에 대해 나는 거듭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두 번 다시 군자의 도를 지키기 위해 그런 무모한 짓을 한 일은 없다.⁵⁷⁾

여기서 일가 선생은 사람이 하는 짓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금하심 여부에 따라서 선행과 악행 등 두 가지로 양분하는 단순 이분법(單純 二分法)을 뛰어넘고 있다. 일가 선생은 그 대신 사람의 행동을 사람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실용성 위주의 새로운 구분법을 열어 보이고 있다. 이 구분법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은 무모한 짓과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짓으로 구분된다.

4. 일가 선생의 삶에 나타난 유교 윤리의 영향

서양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 사고의 혈관에 흐르는 기독교 문화의 전통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양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배어 있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일가 선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일가 선생은 어려서 한 때는 유교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혼동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장성하면서 서서히 유교 윤리가 지닌 형식 위주의 허례허식적 특성을 깨닫고 기독교 윤리의 생활적이고 실용적인 특성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일가 선생의 사고나 행동이 유교 윤리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결코 없다. 유교에 대한 일가 선생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가 선생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준거의 틀은 유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등 두 가지의 교직(交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가 선생의 저술들을 읽어나가면서 필자는 일가 선생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어

56) 같은 책, 30-31쪽.

57) 같은 데.

있는 유교 윤리의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경천(敬天)·애인(愛人)·애지(愛地)의 삼재(三才) 사상이요, 그 둘은 충(忠)·효(孝) 사상이며, 그 셋은 실학사상(實學思想)이다.⁵⁸⁾

가. 삼재(三才) 사상

우리는 일가 선생의 사고와 행동에서 비록 그 내용의 핵심은 기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에 대한 이해의 형식적 틀은 유교적(한학적)에서 가져오고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 가운데 일가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일관되게 지배해 온 유교의 영향 하나가 삼재(三才) 사상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일가 선생은 봉안 이상촌에서 실시한 농촌소년교육에 대한 언급 속에서 그 증좌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소년교육을 시키는 물론 4H클럽 활동을 주로 했다. 이 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많은 지도자들이 봉안 이상촌을 견학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농촌 청소년들은 공부하면 도시로 나가 입신양명할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우리 봉안 이상촌에서는 4H클럽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공경, 다음 이웃 사랑, 그리고 애향정신 곧 흠을 사랑하는 정신을 주입시켰다.⁵⁹⁾

일가 선생만큼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경천(敬天)’) 사람과 땅을 사랑하며(‘애인·애지(愛人·愛地)’) 산 사람도 드물 것이다.

(1) ‘경천(敬天)’ 사상의 영향

일가 선생은 우선 ‘경천(敬天)’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다. 유교 윤리에서 중시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경(敬)’이다. 이는 ‘주일불이(主一不二)’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즉 “어떤 하나의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되, 결코 흔들림이 없음”을 뜻한다. 섬김의 일관성(一貫性) 내지 일편단심성(一片丹心性)이라고 재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천’은 곧 ‘하늘을 섬기고 그 뜻(天理)을 받들어 준행하되 결코 흔들림이 없음’을 뜻하게 된다.

물론 일가 선생이 섬기고 받든 ‘하늘’은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과는 그 맥락이 사뭇 다르다. 그가 섬긴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었고, 그가 받들어 준행한 것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난 일가 선생은 그것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적어도 그 ‘하늘’에 대한 예모(禮貌)에 있어서 ‘경(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58) 물론 일가 선생의 사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교적 요소가 이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까지나 필자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이 세 가지였다는 얘기일 뿐이다.

59) 『나의 한 길 60년』, 34쪽.

우리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일가 선생의 장로 장립식장에서 일어난 ‘동방요배(東方遙拜) 거부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일가 선생 스스로의 글로 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내가 신사참배 문제로 저들에게 잡혀가 그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 것은 내 나이 27세 때였다. 봉안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장립식 석상에서 이 말썽 많은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내 나이 27세 때 있었던 장로 장립식은 분위기부터 좀 야단스러웠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3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40여 명 왔고, 장로님들이 80여 명, 일반 신도들이 3백여 명이나 모여들었으니 분위기가 야단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장립식 개회 벽두에 일어났다. 동방요배(東方遙拜)와 황군장병무운(皇軍將兵武運)을 비는 일 분간의 묵도를 거부하고 나선 때문이었다.

...“장로를 못하면 못했지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27회 총회에서...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결의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는 우리들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동방요배를 굳이 하겠다면 나는 장로 장립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건가?”

“조금도 걱정 마시오. 동방요배는 내가 반대한 것이니 책임 또한 내가 질 것이요. 징역을 가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히 나오자 동방요배를 우기고 나섰던 분들도 한 발 양보하고, 장로 장립식을 그대로 마치게 되었다.⁶⁰⁾

이후에 일가 선생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받고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조를 굽히지 않았다.

일가 선생의 이러한 ‘경천’ 사상은 ‘경’의 윤리적 원리로 일반화되어 기독교인 농민으로서의 그의 일생 동안 일관되게 이어졌다. 이 일관성에 대하여 안병욱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선생님은 일생일념(一生一念)의 생을 사셨고, 일생일원(一生一願)의 뜻을 펴셨고, 일생일업(一生一業)의 정열을 쏟았고, 일생일로(一生一路)의 길을 걸으셨다...사람이 일생 동안 한 가지 뜻, 한 가지 일, 한 가지 길, 한 가지 목표에 전심전령(全心全靈)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 김용기 선생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하셨다.⁶¹⁾

일가 선생의 생애를 지배한 ‘경(敬)’의 원칙은 결코 굽힘이 없었던 것이다.

(2) ‘애인(愛人)’ 사상의 영향

일가 선생의 일생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점철되어 있다. 부모에게 효

60) 『나의 한 길 60년』, 38-39쪽.

61) 안병욱, ‘서문’, 같은 책, 8쪽.

성이 지극하였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이웃간에 널리 화목하였을 뿐 아니라 더 넓게는 나라 전체의 농민들의 삶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다.

일가 선생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가 일제에 쫓겨 도피중인 대학생 전사옥(田思玉)을 광인(狂人)으로 가장시켜 숨겨준 일⁶²⁾이나, 아드님을 퇴학시킨 초등학교 교장의 아들, 표광렬(表光烈) 군이 학병으로 끌려가기 싫다고 상의하러 왔을 때 미친 척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일⁶³⁾, 그리고 피난길에 들이닥친 북한 인민군의 위협을 의연한 설득으로 모면하고 오히려 넉넉히 차려낸 밥상으로 배불리 먹여 보낸 일⁶⁴⁾ 등이 일가 선생의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일가 선생이 사람을 얻는 방식은 특히 신의(信義)와 근실(勤實)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가 선생이 자기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바꾸어 동지(同志)나 협력자(協力者)로 만들어버리는 비결이 바로 신의와 근실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가 무턱대고 경기도 광주 소성(小城)이라는 곳에 사는 부자 함 모 씨를 찾아가서 자기 맨 몸을 담보 삼아 4백 원을 빌려 땅을 산 다음, 부지런히 일하여 옥토로 개간한 다음, 그 땅을 팔아서 천2백 원을 만둣으로써 3년 만에 빚을 갚고도 8백 원이나 남겨 더 넓은 다른 땅을 사들인 일은 그의 이 신의와 성실에 찬 면모를 드러내는 유명한 일화이다. 그때 그 부자가 한 말이 인상 깊다.

젊은이는 나를 두 번이나 놀라게 하는군요. 처음 빚 얻러 왔을 때 놀랐고, 이번에 또 놀랐으니 빚을 주고 이렇게 기쁨을 느껴본 일은 처음이요. 당신은 장차 크게 성공할 것이며 이 나라에 유용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요. 나는 그것을 꼭 믿으며 또 보고 있겠소.⁶⁵⁾

이러한 일가 선생의 대인 관계는 ‘한번 동지는 평생 동지’의 인간관계로 나타난다.

(3) ‘애지(愛地)’ 사상의 영향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농사꾼이 된 일가 선생에게 있어서 땅은 단지 그의 삶의 터전만이 아니었다. 땅은 곧 그의 평생에 걸친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와 땅 사이의 관계는 그의 일생 동안 불가분적(不可分的)으로 이어졌다. 그는 일제 하에서 자기 고향에 봉안 이상촌을 건설한 이래 다섯 차례에 걸쳐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땅들을 사들여 비옥하고 풍요로운 낙원으로 일구어내었다. 그의 자서전에 해당하는 『나의 한 길 60년』에 소개되어 있는 개척의 발자취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일단 그의 손이 닿으면 넉넉한 소출을 내는 비옥한 땅으

62) 『나의 한 길 60년』, 43-44쪽.

63) 같은 책, 44-45쪽.

64) 같은 책, 92-94쪽.

65) 『가나안으로 가는 길』, 86쪽.

로 변화곤 하였다. 그는 정말 땅을 사랑할 줄 아는 농사꾼이었다. 그의 땅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 1> 일가 선생의 농장 개척 발자취

순서	시기	농장 이름	위 치	비고
1차	1931년	봉안 이상촌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2차	1946년	삼각산 농장	경기도 고양군	
3차	1950년	에텐 향	경기도 용인군	
4차	1954년	황산 가나안 농장	경기도 하남시	1962년 제1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5차	1973년	제2 가나안 농군학교	강원도 신림(치악산 발치)	

자세는 우선 농사꾼으로서 그의 근실(勤實)한 자세로 나타난다. “남이 놀 때 일하고, 남이 쓸 때 아끼고, 남이 배불리 먹을 때 허리띠를 졸라 매었으니, 잘 살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닌가!”라는 일가 선생의 말⁶⁶⁾은 그의 일생을 지배한 근실의 원칙이었다. 일가 선생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 옥토로 바꾸는 또 하나의 비결은 그의 철저히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영농방법에 있었다.⁶⁷⁾

나. 충효(忠孝) 사상

다음으로 우리가 일가 선생의 생애 가운데서 읽어낼 수 있는 유교 윤리의 영향은 충효 사상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가 선생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孝子)였다. 우선 아버지를 존경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그가 농사꾼이 된 것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 것이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까지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정신적으로 끝없는 방황과 술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겨우 ‘농사일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으로 낙착을 보게 되었지만, 이 결론을 더욱 굳건하게 한 것은 갑자기 세상을 뜨시게 된 아버지의 유언이었다...아버지는 돌아가실 때에 나에게 꼭 농사꾼이 되라는 유언을 하셨다.
⁶⁸⁾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상에 공명하는 아들로서, 말하자면 사상의 후계자로서 더욱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마치 당신께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에게 기대하시는 듯, 말씀과 책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할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에 많은 애를 쓰

66) 『나의 한 길 60년』, 26쪽.

67) 일가 선생 나름의 이 독특한 농장경영법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 82-85쪽에 그 한 전형이 소개되어 있다. 이 농장경영법은 고향에서의 그의 첫 개간에 적용한 것이었다.

68)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60쪽., 같은 이야기가 『나의 한길 60년』, 21쪽에도 나온다.

신 것으로 느껴진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미 아버지의 평생의 사상에 완전히 공명하였으므로 누가 무슨 수를 쓴다 해도 나에게서 농사를 떼게 할 수는 없었다.⁶⁹⁾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양친의 신앙을 대 이은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어머니는 무학문(無學問)이셨다. 겨우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한글을 익히셨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도이셨다. 스스로의 생활에서, 이웃을 돕는 일에서, 무엇에서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 하셨다.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머니만큼 충실히 이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한 분도 드물 것이다...

..어린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극히 습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부모님들이 하시니까 그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니까 그저 실행했을 뿐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비로소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빛나는 증거를 어머니가 행동으로써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⁷⁰⁾

‘효는 만행의 근본’이라는데, 일가 선생 같은 효자가 어찌 만사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나 그의 이 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밀받침되어 있지 않았던가!

일가 선생의 이 효성(孝誠)은 위로는 나라 사랑하는 일로 확대되었고,⁷¹⁾ 옆으로는 이웃(특히 농민) 사랑하는 일로 확산되었으며, 아래로는 자녀들을 모두 가나안의 식구들로 이끌어 공동체를 이루는 일로 열매 맺었다.⁷²⁾

다. 실학(實學)사상

우리는 일가 선생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실학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상의 영향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우선 일가 선생이 어렸을 때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읽고 거기 실려 있는 우리나라 영토에 관한 기록에 영향을 받아 가출하여 중국 대륙으로

69) 『가나안으로 가는 길』, 61쪽.

70) 『가나안으로 가는 길』, 35-36쪽.

71) 일가 선생의 복민주의 및 농군학교 운동은 다 실질적인 부국(富國)을 건설하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나라사랑의 마음에 그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일가 선생의 마지막 저서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의 부제가 ‘세계사에 조명해본 우리 조국’이라는 사실만 봐도 일가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이 얼마나 진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72) 정인홍은 효(孝) 개념을 (1) 종적 사회 관계 윤리(효 : 사친윤리, 충 : 보국윤리, 자 : 교자윤리), (2) 횡적 사회 관계 윤리(제 : 호혜윤리, 신 : 교의윤리, 애 : 협화윤리) 등으로 분석, 그 현대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외연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인홍, ‘한국유교사상과 윤리’, 국민윤리편집위원회 편, 『신국민윤리 I · II』(서울 : 대왕사, 1981), 180-182쪽. 참조. 일가 선생의 일생은 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효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까지 갔다 왔다는 일화가 눈에 뜨인다.⁷³⁾ 이미 어렸을 때 실학과 학자들의 저서들을 접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의 첫 개간사업인 봉안 이상촌 운동의 기본 원칙에서 일가 선생의 발자취에 끼친 실학사상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일가 선생이 1930년대에 세워 철저히 지킨 기본 원칙들은 놀라울 만큼 철저히 실사구시적인 것들로서 오늘날에 봐도 새로워 보이는 것들이다.

이제 봉안 이상촌의 특기할 만한 몇 가지를 써보기로 하겠다. 독자여러분은 1930년대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읽어주기 바란다.

① 협동조합 운영 : 협동조합운동의 창시자 오웬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양, 자급자족과 상호부조, 공영(共榮)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주의 체제의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봉안 이상촌 건설과 더불어 이 협동조합을 운영했다.

② 소비조합 운영 : 봉안 이상촌 전 가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생필품을 공동구입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배제했다. 이 운동은 1844년 영국의 소도시 로치데일에서 시작되었으나 당시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였다.

③ 공제상호조합 : 소비조합과 함께 시작했는데 상이점은 병, 상해, 길흉사 때 상부상조 정신으로 운영했다.

④ 농촌유년교육(설명 생략)

⑤ 농촌 소년교육(설명 생략)

⑥ 농촌 청년교육 : 소년교육과 함께 철두철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흠을 사랑할 줄 아는 청년교육을 목표로 공연히 들뜬 청년이 되지 말 것을 언제나 강조했다.

⑦ 청년회의 활동 : 봉안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회는 여운혁 집사가 중심이 되었는데, 야학 운영으로 봉안 이상촌 인근 부락민들에 대한 문맹퇴치(文盲退治) 운동을 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 봉안 마을은 1939년대에 이미 문맹퇴치에 개가를 올렸다.⁷⁴⁾

우리는 이 인용문의 내용 속에서 밀도 짙은 ‘실사구시’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일가 선생이 봉안 이상촌 건설을 위하여 세운 황무지 개척, 농장경영법⁷⁵⁾을 보면 그의 접근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사구시적’임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5. 끝머리에

이 논문은 일가 사상과 유교 윤리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주로 문헌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가 선생의 주요 저서와 관련 논문들이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일가 선생의 사상 형성에 끼친 유교적 영향은 대체로 혈통, 즉 일가 선생 자신의

73) 『나의 한 길 60년』, 14-17쪽.

74) 『나의 한 길 60년』, 34-35쪽.

75) 『가나안으로 가는 길』, 82-85쪽.

표현대로 ‘유교사상에 젖을 대로 젖은’ 안동 김씨 집안에서 전수된 것과 어릴 때 부친과 서당 훈장에게서 받은 한학 교육 및 성장 과정에서 맺은 교유(交遊) 관계로부터 온 것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일가 선생이 가문 대대로 이어온 유학의 전통과 일릴 적에 부친과 서당 훈장에게서 배운 한학의 영향, 그리고 장성하여 가까이 교유한 유영모 선생(제3대 오산학교 교장)의 영향으로 하여 늘 유교적 가르침을 상기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가 선생의 유교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것은 유학이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위주의 허례허식이라는 생각과, 농사꾼을 천시(賤視)하는 사상이라는 생각, 그리고 나라가 못 살게 된 원인들인 계급사상, 봉건사상, 사대사상이 유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일가 선생은 어렸을 적에는 한 때는 유교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혼동하는 묘한 지적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장성하면서 그는 유교 윤리가 지닌 형식 위주의 허례허식적인 특성을 깨닫고, 기독교 윤리의 생활적이고 실용적인 특성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가 선생의 사고나 행동이 유교 윤리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유교에 대한 일가 선생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가 선생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준거의 틀은 유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등 두 가지 요소의 교직(交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가 선생의 저술들을 읽어나가면서 필자는 그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유교 윤리 사상의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경천·애인·애지’의 삼재사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요, 그 둘은 ‘충·효 사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고, 그 셋은 ‘실학’의 ‘실사구시’ 사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다.

물론 이 세 가지로 일가 선생이 유교 윤리 사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의 전부를 망라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전문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미처 밝혀지지 못한 유교적 요소들이 더욱 정교하게 그리고 보다 분석적으로 새로이 밝혀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일가 선생의 저서

- ① 김용기, 『참 살길 여기에 있다』, 배영사, 1965.
- ② _____, 『가나안으로 가는 길』, 창조사, 1968.
- ③ _____,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창조사, 1970.
- ④ _____,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삼화출판사, 1973.
- ⑤ _____, 『증, 젊음에게』, 배영사, 1974.
- ⑥ _____,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사, 1978.
- ⑦ _____, 『이것이 가나안이다』, 규장문화사, 1979.
- ⑧ _____, 『가나안농군학교』, 창조사, 1979.
- ⑨ _____, 『나의 한 길 60년』, 규장문화사, 1980.
- ⑩ _____, 『조국이며 안심하라』, 규장문화사, 1980.
- ⑪ _____,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규장문화사, 1982.

2. 일가 사상에 관한 논문들

- ① 이만열, “한국 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일가의 생애”, 『제1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 (서울 : 일가사상연구소, 1998),
- ② 한규무,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같은 자료집,
- ③ 김기석, “국난극복을 위한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사”, 같은 자료집,
- ④ 박진환, “일가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 개발”, 『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 (서울 : 일가사상연구소, 2001).,
- ⑤ 황종건,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 선생”, 같은 자료집.,
- ⑥ 손봉호,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 선생”, 『제3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 (서울 : 일가사상연구소, 2002).,
- ⑦ 김지자,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 같은 자료집.

외 다수

◆ 연구발표 2 토론

유교와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사상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 규 훈(충신대학교 교수)

선구적 실천운동가인 일가선생의 사상을 유교와 연관하여 분석한 이태건 교수의 논문은 일가선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제공해 주었다. 일가선생의 생애에 미친 유교의 영향과정에서, 기독교윤리로 초점이 옮겨가는 과정까지 흐름을 무리 없이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일가선생의 삶에 나타난 유교윤리의 영향(4장)을 삼재사상(경천, 애인, 애지), 충효사상, 실학사상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탁견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용자료의 한계, 집필시간의 급박성 등으로 인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사족적인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제목과 목차구성에 있어 정치함이 다소 보완되었으면 한다.

주2)에서 밝혔지만,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꼭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특히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이 유교사상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굳이 부제를 삽입하여 혼선을 빚게 하지는 않았나 싶다. 이는 3장 나절의 ‘기독교윤리와의 혼동으로부터 기독교윤리에 대한 확신으로’까지 연결된다. 물론 ‘윤리’라는 말이 가치관, 세계관을 대치할 수 있는 좋은 용어이지만, 중간에 불쑥 삽입되어 내용과 정합적이지 못한 느낌을 조장하고 있다. 3장의 장 제목은 ‘.....태도’인데, 소절제목은 ‘.....생각’으로 기술되는 것도 논문의 틀거리를 어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3장 가절과 나절의 분량이 거의 비슷한데 가절에는 (1) (2)....의 소목을 두었고(그것도 전체목차에서 주목될 정도로 길게), 나절은 그냥 절 제목만 제시했다. 만일 기독교사상가인 일가선생을 부각시킨다면 ‘.....기독교윤리에 대한 확신’과정도 소목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둘째, 주로 문헌분석법으로 기술된 본 논문의 준거자료가 3권에 불과하여, 좀 더 핵심적인 인용과 논의에 한계를 드러내는 듯하다. 일가선생의 유작 11권이 있고, 평자가 입수한 다른 책만 해도 본 주제에 적절한 내용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2장 나절에서 유영모선생과의 교유와 영향을 논하는 과정에서 김홍호 교수의 말에 논거를 삼는 것, 그리고 봉안 이상촌에서의 배경설명에 필요 이상의 인용문이 삽입된 것 등은 글의 긴장감을 축소시키고 있다. 다석의 자료는 지천이고, 보다 폭 넓은 유교영향을 드러내자면 다음과 같은 인용이 어떨까 한다.

일가선생은 ‘인간생활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란 제목의 글 속에서 인간생활을 정치생활, 경제생활, 종교생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그 중 자기를 먼저 다스리는 정치생활이란 소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사상을 나는 정치관으로 삼는다. 첫째로 자기 몸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다스린다 함은 순서와 질서를 바로 한다는 말이다. 자기 할 일의 순서와 질서를 바로 하는 것이 곧 자기수신이다. 사생활, 공적생활을 막론하고 질서가 정연한 사람은 자기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가정생활에 질서를 세워 각기 할 일들을 찾아 하게 하고,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어른을 공경하며, 살림을 과부족 없이 규모 있게 하면 그것은 가정정치를 잘 해나가는 것이다. 마을을 우애 있고 살기 좋게 잘 다스리는 것은 마을정치이며, 국민경제의 질서를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국민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찾아 진실히 일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명랑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함은 곧 나라정치를 잘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 창조사 / 1970년)

심지어 2차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일가선생 자체들의 저술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내용은 필자의 다음 작업에 기대해 본다.

셋째, 전체적인 분석틀을 형성하는 용어는 개념정의나 인용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3장 가절(부정적 태도:시의에 맞지 않는 허례허식)이 그 이하 (1)(2)...소목을 유연하게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인가 하는 점. 특히 4장 가절(삼재사상)은 필자의 의욕적이고 특장적인 시도로 보여지는데, ‘삼재사상’정도는 배경설명의 친절함이 아쉽다. 다음의 내용을 각주에라도 삽입했으면 하여 제시한다.

“ ‘삼재’는 주역의 십익에 처음 보이는데, 주대의 인문주의적 배경으로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확립한 공자에 이르러 인간은 윤리의 주체로 소개되었다. 중용, 예기 등을 통하여 인간은 사회적인 도덕주체의 위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천지와 함께 우주와 세계창조의 주체자로 인식되었다. 주역에서는 육효(六爻)를 설명하면서 초효와 2효는 지, 3효와 4효는 인, 5효와 상효는 천으로 상징했다. 주역계사 ‘설괘전’에서는 각각 천도(天道)를 음양(陰陽), 지도(地道)를 강유(剛柔), 인도(人道)를 인의(仁義)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상사에서 보면, 단군신화의 환웅을 천, 웅녀를 지, 단군을 인으로 보는 삼재론적인 해명이 일반적이다. 또한 삼재론의 측면에서 경제와 윤리의 조화를 시도하여, 하늘에 근거한 인륜과 땅에 근거한 산업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천의 종속되었던 지를 새롭게 부각시킨 것으로 새로운 삼재론의 해석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일가사상의 대전제인 기독교의 경천, 애인과 일가농민운동의 근거를 애지(愛地)로 보고, 천, 인, 지의 세 가지 틀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

넷째, 절제목과 내용과의 상합성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한가지 실례로 4장 나절 ‘충효사상’에 충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냥 ‘효사상’이란

제목 하에 가나안농군학교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김용기장로의 사상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347쪽-361쪽)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효도론’이란 제목으로 일가선생의 심도있는 효강의가 수록되어 있으며, 『가나안의 효(孝)』, 『김평일의 효이야기』와 같은 자녀들의 핵심적인 저술도 있다.

아니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충효사상’절을 살리든지, ‘충사상’을 분리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가농민운동의 논리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복민현장’ 13개 조항 중 “⑪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스스로 하는 국민이 되자.”는 대목은 일가의 충사상에 접근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삼강오륜과 유교의 본령을 연결지어 설명하면서 국민과 위정자의 국가사회에 대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4장 다절도 실학사상이라는 제목 하에 ‘실사구시’측면의 일부분만을 기술하고 있다. 유학을 다루는 마당에 ‘실학’이 도입되었다면 유학과 실학의 연관논리가 어떤 부분인지를 언급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실학사상의 ‘이용후생’ ‘경제치용’적인 측면도 일가의 실천적인 삶의 논리를 담는데 좋은 그릇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필자가 글머리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인과 일가선생의 사상을 정리하는 과정에 유교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가사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논평을 갈무리한다.

◆ 연구발표 2 토론

유교와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사상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 복 규(서경대학교 국문과 교수)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일가 선생님의 삶과 사상이 지닌 유교적 성격에 대하여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교학자도 아니고 윤리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문학자 중의 한 사람일 따름인데, 언젠가 제가, 한국전통신앙과 한국 개신교와의 상관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 보니, 이 영광스런 자리에까지 불려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받아서 읽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제게 떠오른 궁금증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소임을 감당할까 합니다.

첫째, 일가 선생의 사상 형성에 끼친 유교적 영향의 원천을 “혈통(血統)으로부터 온 것과 교육과 교유(交遊) 관계로부터 온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하셨는데, “혈통”이란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혈통은 생물학적·유전적·생득적·선천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윤리적·후천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이 글에는 덜 어울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안 : “가학(家學)으로부터 온 것”?)

둘째, “유영모 선생과 교유를 갖게 된 일가 선생이 그의 유·불·선 3교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고 하셨는데, 이 논문의 테마가 ‘유교’와 ‘일가 사상’과의 관계이고 보면, 자칫 논지를 흐릴 염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영모 선생이 유·불·선 3교의 사상을 공유하였으되 그 중에서도 유교를 근간으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유영모 선생이 일가 선생에게 유교만을 강조했다는 것을 논증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만 자연스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일가 선생의 유교에 대한 태도”란 작은 제목은 국어 문법상 “유교에 대한 일가 선생의 태도”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일가 선생이 견지한 “경천(敬天)·애인(愛人)·애지(愛地)”를 유교의 “삼재(三才)” 사상의 영향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삼재” 사상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천·지·인” 셋으로 설명하는 존재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일가 사상의 윤리사상과 막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보입니다. “유교의 존재론적인 삼재사상을 일가 선생이 윤리적으로 재해석·응용하였다”고 하는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째, 실학사상(實學思想)과 일가 선생의 사상을 막바로 연결시키신 것도, 위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실학의 주요관심사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었는데, 일가 선생은 실천윤리적인 방향으로 재해석·응용하였다”고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발표자, 토론자 약력

■ 연구발표 1 ■

발표자 -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학 력

1975	총신대학교 졸업(B.A.)
1978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졸업(M.Div.)
1981	총신대학교 대학원 졸업(Th.M.)
1987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졸업(Ph. D.)
1986-1987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Research Fellow)
1992-1993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Visiting Professor)
2000	Stellenbosch University In South Africa (Visiting Professor)

■ 경 력

1981-198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1982-1984	미국 시온장로교회 목사
1987-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994-현재	개혁신학연구소 소장

토론자 - 신현수(평택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졸업
영국 글라스고우대학교에서 신학으로 철학박사
한국개혁신학회 이사
한국사회이론학회 감사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편집위원. 총무 이사 역임
현)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조상식(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수료
구로고등학교 교사
독일 괴팅겐(Goettingen)대학교 석사(교육학, 사회학)
독일 괴팅겐 대학교 박사(교육철학전공)
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 연구발표 2 ■

발표자 - 이태건(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학 력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사상-윤리교육 전공 : 교육학 석·박사)

■ 경 력

서울대학교 강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임강사, 부교수, 조교수,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장, 교무처장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
현)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강사
한국국민윤리학회 고문 겸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사회과학아카데미 회장

토론자 - 정규훈(충신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졸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졸업(사회윤리 전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동양철학 전공)
서일대학 교수 역임
현) 국학연구소 소장
충신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복규(서경대학교 국문과 교수)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료(문학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초서연수과정 수료

한국민속학회 총무이사

현)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